

1월 둘째주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3장 1절-13절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너 성결키 위해 (찬송 420장)
- 지난 한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 온전히 바쳐진 자들로 성막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본문에서 레위인들을 따로 계수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제사장과 제사자들을 도와 회막에서 섬기는 일, 이동하며 회막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 회막을 지키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의 직무와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의미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본문을
시작하며**

- 1-4절 아론의 아들들
- 5-10절 레위인의 직무
- 11-13절 레위인을 구별하여 택하심

1. 아론의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1-4절)

1) 아론의 아들들이 기름부음을 통해 위임받은 직분은 무엇입니까?(3절)

▶ 제사장의 직분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다. 이 직분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1절에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기록하면서 나열된 이름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인 모세의 영적 아들임을 알 수 있다.

**마음다해,
말씀과 나눔**

2)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4절)

▶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려다가 죽었다.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로 제사를 드려 백성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다. 이 제사장 직은 교회의 머리로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 제사장 직은 거룩하고 존귀한 의미를 갖는 직분이기에 그에 걸맞은 성결함이 요구된다. 제사장직을 자의로 행한 나답과 아비후가 비극을 맞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나눔1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제사장에게는 더욱 순결한 삶과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회복해야 할 모습, 다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2.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돕도록 하십니다. (5-13절)

1) 레위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8절)

▶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일.

레위인들은 오직 성막의 일을 위해 구별된 이들로써 제사장을 돕는 성막의 모든 제반 사무가 그들의 몫이었다. 광야에서 성막을 철거하고 세우는 일,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는 일, 진설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일,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제사장의 제사를 돕는 일 등이 모두 그들의 업무였다. 또한 율법을 다루는 관원과 재판관, 성전의 문지기, 찬양대 등 다양한 일들을 감당했다. (대상23장, 29장 참조)

2)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10절)

▶ 죽임을 당한다.

여기서 외인이라 함은 이방인 뿐 아니라 제사장 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는 말이다. 심지어 성전 일을 수종드는 레위인조차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하게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갈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3) 레위인은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습니까? (12절)

▶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모든 만아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열 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생명을 보존 받았다. 당시의 장자는 한 집안을 대표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이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고, 우리도 그를 따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고전 15:20-23)

나눔2 하나님은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 나눠봅시다.

나눔3 레위인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만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도 유월절 어린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_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소서.
공동체_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1월 셋째주

나를 온전히 드리려거든 민수기 6장 1절-12절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 321장)
- 지난 한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본문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별된 백성은 자신의 삶을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살피볼 나실인의 규례는 헌신하는 삶을 열망하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원리를 제시해줍니다.

1.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8절)
1)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서원한 기간에 무엇을 마시거나 먹지 말아야 합니까? (3,4절)

▶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않으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또한 생포도나 건포도뿐 아니라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율법은 포도주를 금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나실인은 포도주를 포함한 모든 술을 멀리함으로써 자신의 특별한 헌신을 고백해야 했다. 금주를 통해 나실인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었다. 포도와 관련된 음식이 철저하게 금지된 것은 구약에서 포도가 풍요와 기쁨의 상징이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나실인의 서약이 얼마나 하나님께만 집중된 절제의 삶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

2) 나실인은 서원기간 동안 무엇을 자르면 안 됩니까? (5절)

▶ 머리털 : 이에 대한 해석은 첫째, 머리카락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드러내는 화환과 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머리에 관을 씌우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둘째, 머리카락을 피와 더불어 생명의 상징으로 여긴 당시의 문화를 고려할 때,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3) 나실인은 서원기간 동안 무엇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까? (6절)

▶ 시체 : 율법은 기본적으로 시체와의 접촉을 금하고 있지만, 부모, 자식, 형제, 출가하지 않은 누이의 시체에는 손을 댈 수 있었다(레 21:1-3) 하지만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은 그마저도 금지되었다. 나실인 서약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다.

나눔1 헌신은 성도의 기본 덕목이지만, 하나님은 나실인 규례와 같이 특별한 헌신의 방법과 기간을 마련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경건에 유익을 얻기 위해 기간을 정해놓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헌신하려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2. 하나님은 부정해진 나실인이 행할 정결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6-9절)

1) 원치 않게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해진 나실인은 언제 그 머리를 밀어야 합니까? (9절)

▶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곧 일곱째 날

율법에 따르면 부지중에 지은 죄도 반드시 속죄해야 했다.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므로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은 부정한 기간이 지난 때, 즉 7일째가 돼서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때 머리를 밀는 것은 이전 서약이 파기되었음을 의미한다. 머리를 밀는 행위는 깊은 슬픔과 애통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한다.

2) 제사장은 부정해진 나실인이 바친 바돌기 두 마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11절)

▶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시체로 인해 얻은 죄를 속한다.

속죄는 부정해진 머리를 깎는 행위만으로는 완성되지 못한다. 속죄에는 반드시 생명을 죽여 드리는 피의 제사가 요구되었다. 속죄 제사에 이어지는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성도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죄로 더럽혀진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일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얻는 속죄와 동시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동반되는 일이다.

3) 부정해진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2절)

▶ 일 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려야 한다.

속죄제는 모든 죄에 대해 드려지는 제사인 반면, 속건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배상의 책임과 더불어 드려지는 제사였다. 죄를 다루는 두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를 모두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성결을 이루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해진 나실인이 이전 서약의 날들이 모두 취소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한순간의 죄로 이전의 헌신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눔2 나실인에게에는 특별한 절제가 요구되었습니다. 절제는 거룩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떤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할지 생각해봅시다.

나눔3 하나님은 부정해진 나실인을 제사로 깨끗하게 하시고, 나실인의 서원을 지킬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어지러워진 삶의 모습을 씻어내고, 경건의 새날을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결단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 주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공동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1월 넷째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 민수기 10장 11절-36절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430장)
- 지난 한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본문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천과 가족으로 지은 천막인 성막에 거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천막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누추한 천막을 거처로 삼으신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이자 사랑이며, 성도의 특권입니다.

1.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의 구름을 따라 진영을 갖춰 광야를 행진합니다. (11-28절)

1)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때는 언제이며, 그들이 출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12절)

▶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때로부터 만 1년 1개월 5일, 시내산에 도착한지 만 11개월 5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본 이스라엘은 여정을 출발했고, 몇 번의 행진과 휴식을 반복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광야에 도착했다. 하나님은 행진과 휴식을 반복하며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인도하셨다.

2) 이스라엘은 무엇을 따라 광야를 행진했습니까? (13절)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이 머무를 때와 행진할 때 갖출 진형에 대해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은 머물 때나 행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행해야 했다.

나눔1. 이스라엘은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했고,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멈췄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행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일을 진행하거나 멈춘 경험을 나눠봅시다.

마음다해,
말씀과 나눔

2. 모세는 호باط에게 동행을 간청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29-36절)

1) 모세가 호باط에게 동행을 간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절)

▶ 호باط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서도 광야의 지형과 사정에 맞게 백성들을 세심히 돌보는 일은 모세의 중요한 책무였다. 호باط은 광야를 잘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사람도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의 선두에 선 것은 무엇입니까? (33절)

▶ 언약궤

언약궤는 십계명 판을 담은 성막의 핵심 기물이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행진의 선두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행진의 시작과 끝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35,36절)

▶ 행진이 시작될 때 :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흠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행진을 멈출 때 :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요청하는 기도였다. 행진이 시작될 때는 대적들을 흠으시길 (주의대적 = 이스라엘의 대적, 동일시하고 있다), 행진을 멈출 때는 이스라엘을 돌봐주시길 요청하고 있다.

나눔2. 모세는 기도로 행진을 시작하고 기도로 행진을 끝냈습니다. 각자의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좋을지 이야기 해봅시다.

나눔3.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 매일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공동체: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말씀을 따라 멈추는 공동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 204장)
- 지난 한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본문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며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림 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1. 예수님은 공허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21-23절)

1)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까? (21절)

▶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21절은 15절부터 시작된 거짓 선지자들의 불의한 삶에 대한 심판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 날에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19절). 21절에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정작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2)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대답이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님은 심판 날에 이들의 종교적 행동에 대해 불의하다고 판단하신다. 그들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나눔1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비유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24-29절)

1)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 그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그의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집과 같다.

팔레스타인에서 ‘반석’은 건천(와디)과 대비되는 안정된 위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폭우가 쏟아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26,27절)

▶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고 그의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심하게 무너지는 그 집과 같다.

건천은 우기가 아닌 건기 때에는 내내 말라있다. 하지만 우기 때에 폭우가 쏟아지면 큰 강이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당장 물이 없다고 해서 ‘와디’(모래)에 집을 짓지 않는다. 폭우가 쏟아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큰물에 쓸려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3)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28,29절)

▶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남의 말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서기관들이 율법을 전달하는 것과는 태도와 내용면에서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나눔2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분이 있다면 소개해 봅시다.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나눔3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위선에 빠진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가장 감동 받았던 말씀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나눠 봅시다.

함께 기도

삶- 말씀을 귀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머리와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공동체- 가치한 일을 하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 204장)
- 지난 한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본문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며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림 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1. 예수님은 공허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21-23절)

1)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까? (21절)

▶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21절은 15절부터 시작된 거짓 선지자들의 불의한 삶에 대한 심판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 날에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19절). 21절에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정작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2)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대답이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님은 심판 날에 이들의 종교적 행동에 대해 불의하다고 판단하신다. 그들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나눔1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마음다해,
말씀과 나눔

2.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비유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24-29절)

1)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 그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그의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집과 같다.

팔레스타인에서 ‘반석’은 건천(와디)과 대비되는 안정된 위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폭우가 쏟아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26,27절)

▶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고 그의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심하게 무너지는 그 집과 같다.

건천은 우기가 아닌 건기 때에는 내내 말라있다. 하지만 우기 때에 폭우가 쏟아지면 큰 강이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당장 물이 없다고 해서 ‘와디’(모래)에 집을 짓지 않는다. 폭우가 쏟아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큰물에 쓸려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3)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28,29절)

▶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남의 말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서기관들이 율법을 전달하는 것과는 태도와 내용면에서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나눔2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분이 있다면 소개해 봅시다.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나눔3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위선에 빠진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가장 감동 받았던 말씀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나눠 봅시다.

함께 기도

삶- 말씀을 귀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머리와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공동체- 가칭한 일을 하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소서.

2월 둘째 주 **죄를 용서 받음으로** 마태복음 9장 1-13절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 95장)
- 지난 한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본문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중풍 병자를 고치시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이를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1.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1-8절)

1)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십니까? (21절)

▶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중풍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의 죄를 사하셨다. 주님은 중풍 병자와 그 친구들의 신실함을 좋게 평가하셨다. 예수님은 몸을 고치실 뿐 아니라 영을 고치시려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다.

2)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자 서기관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16절)

▶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도 아닌 곳에서 희생 제사도 없이 단독적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었다. 예수님은 신적 권위로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다.

나눔1. 중풍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예수님 사이에서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는지 나눠보고,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나눠봅시다.

마음다해,
말씀과 나눔

3)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4-8절)

▶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에게 신적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셨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의 진위를 구별할 수 없었더라도 '일어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죄 사함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2. 예수님은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9-13절)

1)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실때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까?

▶ 많은 세리와 죄인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죄인의 대명사였다.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은 그들을 공동체로 동료로 받아들이는 의미였다. 이런 모습을 통해 죄인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엿볼 수 있다.

2) 예수님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13절)

▶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눅18:9-14 참조.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

나눔2. 예수님은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죄와 질병의 병상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킨 경험, 말씀으로 일어선 경험을 나눠봅시다.

나눔3.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다가가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봅시다.

함께 기도

삶-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공동체- 교회가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 43장)
- 지난 한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본문을
시작하며

바리새인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향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판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안식일 잣대로 기본적인 생명의 안식조차 억누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써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십니다. 천국의 안식은 단순한 쉼, 그 이상입니다.

1.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전통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생명의 안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1,2절)

1)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1절)

▶ 시작하여 이삭을 잘라먹었다.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었다. 신명기에 보면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였다.(신 23:25)

2) 바리새인들이 이삭 잘라 먹는 행위를 비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전율법인 '미쉬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39가지나 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다. 이 행위는 추수, 탈곡, 음식 준비 노동에 해당한다. 미쉬나는 율법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 15:3에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긴다고 질타하신다.

나눔1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전통은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정작 사람의 생명은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생명 존중이 빠진 안식일 규례는 빈껍데기일 뿐입니다. 법과 규칙의 준수를 위해 생명 존중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례를 경험했거나 알고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마음다해,
말씀과 나눔

2.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망가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8절)

1)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시장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 제사장이 성막에서 내어준 거룩한 진설병을 먹었다.

레위기 24:5-9에 의하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성전 진설병을 제사장으로부터 받아먹는다. (삼상 21:1-6) 눅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일행들에게 진설병을 내어 준다. 성경은 이들의 행위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것은 율법 적용에 있어서 적절한 융통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의 문자적 이행보다 율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2) 안식일에 예외적으로 해도 되는 노동은 무엇입니까? (5,6절, 민 28:9,10)

▶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노동

안식일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노동을 하지만 그것은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성전에서 안식일에 하는 노동은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안식일과 제사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기에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에 관한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계시다.

3) 바리새인들이 무죄한 제자들을 정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8절)

▶ 하나님이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는 분이다. 그분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또한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하며(마12:12),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임을 말씀하심으로(막2:27)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다.

나눔2 주님이 회복하신 참된 안식은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소극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님의 안식일 정신을 어떻게 오늘날의 주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_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전하게 하소서.
공동체_ 주일을 생명의 안식을 누리는 날로 보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2월 넷째 주	열매를 맺음으로 마태복음 13장 18-30절
본문을 시작하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마치 길가, 돌밭, 가시떨기처럼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결실합니다.
마음다해, 말씀과 나눔	1. 씨 뿌리는 비유는 ‘열매 맺는 신앙’과 ‘열매 없는 불신앙’ 두 양태를 보여줍니다. (18-32절) 1)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공통적인 결말은 무엇입니까? ▶ <u>결실하지 못한다.</u> 이 세 가지 밭은 신앙의 성장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즉 사람의 불신앙 상태를 말한다. 2)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u>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u>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은 네 가지 밭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 맺는 밭’의 두 가지 밭의 유형을 보여준 것이다. 나눔1. 열매 맺지 못하는 밭과 같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어떤 각오가 필요한지 나눠봅시다. 2. 주님은 결국 심판 날에 가라지를 알곡에서 분리해 내어 불태울 것입니다. 1) 좋은 씨가 뿌려진 곡식 가운데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까? (24,25절) ▶ 원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석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악을 심는 자는 마귀다. 악의 세력은 최후 심판 때까지 세상에 공존할 것이다. 2)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9,30절) ▶ <u>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라지는 추수 때 거두어져 불태워질 것이다.</u> 가라지가 알곡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지만 가라지를 그냥 두는 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고 추수 때에 모아서 곡식은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성도들은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나눔2.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을지, 또 한 가라지 속에 있는 알곡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나눠봅시다.

2월 넷째 주	열매를 맺음으로 마태복음 13장 18-30절
본문을 시작하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마치 길가, 돌밭, 가시떨기처럼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결실합니다.
마음다해, 말씀과 나눔	1. 씨 뿌리는 비유는 ‘열매 맺는 신앙’과 ‘열매 없는 불신앙’ 두 양태를 보여줍니다. (18-32절) 1)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공통적인 결말은 무엇입니까? ▶ <u>결실하지 못한다.</u> 이 세 가지 밭은 신앙의 성장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즉 사람의 불신앙 상태를 말한다. 2)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u>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u>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은 네 가지 밭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 맺는 밭’의 두 가지 밭의 유형을 보여준 것이다. 나눔1. 열매 맺지 못하는 밭과 같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어떤 각오가 필요한지 나눠봅시다. 2. 주님은 결국 심판 날에 가라지를 알곡에서 분리해 내어 불태울 것입니다. 1) 좋은 씨가 뿌려진 곡식 가운데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까? (24,25절) ▶ 원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석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악을 심는 자는 마귀다. 악의 세력은 최후 심판 때까지 세상에 공존할 것이다. 2)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9,30절) ▶ <u>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라지는 추수 때 거두어져 불태워질 것이다.</u> 가라지가 알곡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지만 가라지를 그냥 두는 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고 추수 때에 모아서 곡식은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성도들은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나눔2.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을지, 또 한 가라지 속에 있는 알곡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나눠봅시다.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 298장)
- 지난 한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본문을
시작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신앙고백이자, 새 삶을 위한 기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데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1. 예수님은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21, 22절).

1) 베드로가 생각한 용서의 최대치는 몇 번입니까(21절)?

일곱 번

당시 유대 랍비들은 통상적으로 세 번까지 용서할 것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제안한 일곱 번은 통상적인 용서의 개념을 뛰어넘는 관대함이었다.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관대함을 칭찬하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행동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겸손히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2) 예수님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까(22절)?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다.

7번을 70번 하면 총 490번이 된다. 즉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인가? 다음에 이어지는 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단순히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당시 유대 전역의 1년 세수가 약 800달란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만 달란트는 그 종이 이자조차 감당하기 불가능한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러므로 만 달란트의 용서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용서를 뜻한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것을 고려하면 7을 70번 반복한 용서는 무한하고도 완전한 용서라고 이해될 수 있다.

나눔 1 주께서 무한히 베풀라고 하실 만큼 용서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개인과 공동체, 사회에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마음다해,
말씀과 나눔

2. 예수님은 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를 가르치십니다(23-35절).

1) 주인이 종의 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27절)?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금흠’은 죄인 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하나님은 범죄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 아담과 하와를 금흠히 여기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창 3:15, 21).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금흠히 여기셔서 애굽으로부터 건지셨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금흠히 여기셔서 십자가로 가셨다. 누구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금흠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2) 주인이 만 달란트 빚진 종을 옥에 가둔 이유는 무엇입니까(28-34절)?

그가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두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종을 옥에 가둔 이유가 만 달란트의 빚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망각한 그의 악한 행위 때문임을 주목해야 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도 거절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면서도, 스스로 용서받은 자처럼 행하지 않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관계없는 자임을 드러낸다.

3)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35절)?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본문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온전히 고백하는 자는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참 믿음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 은혜의 선물을 꼭 붙드는 이들은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 삶에 용서의 열매가 없다면, 과연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나눔 2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재확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경험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더 크게 깨달은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봅시다.

나눔 3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하라는 명령을 오용하면, 기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또 다른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할 부분은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_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 답게 서로 용납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소서.
공동체_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 212장)
- 지난 한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본문을
시작하며

이 땅에서는 대개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타인 위에 군림하고, 지위가 낮고 힘없는 자들은 권력자들에게 예측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은 사람이고, 다른 이를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가장 크고 높으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심으로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역설의 진리에 눈뜬 자들입니다.

1. 주님은 섬김과 희생의 걸음을 떼시지만,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만 탐할 뿐입니다(17-28절).

1)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을 거라 하십니까(18, 19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구한 것은 무엇이고(20, 21절), 이 일을 알게 된 열 제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24절)?

① 두 형제의 어머니가 구한 것: 자기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다.

② 열 제자의 반응: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겼다.

3)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26-28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오늘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비교와 경쟁이 치열한 시대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에 있지 않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진정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이 누구의 삶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영원히 빛날 삶은 낮아지는 섬김의 삶이다.

나눔 1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경쟁과 지배’가 아닌,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오늘날 세상 조직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각자 경험을 나누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조직과 다른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이야기해봅시다.

마음다해,
말씀과 나눔

2. 예수님은 두 시각 장애인인 시력을 회복시키십니다(29-34절).

1) 두 시각 장애인이 소리 높여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30, 31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는 천지 분간 못 하고 날뛰는 이들에게 간혹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이다”라는 표현을 한다. 눈은 보이지만, 그 보이는 상황에 적합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보이는 게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으나 보지 못하여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는 가운데, 오히려 두 시각장애인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 이 묘한 대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2) 그들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을 때, 무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니까(31절)?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부분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도움을 구했고,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른 채 장애인들을 꾸짖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제지하거나 꾸짖기도 하는 일 말이다.

3) 두 시각 장애인이 앞을 본 후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34절)?

예수님을 따랐다.

시각장애인들의 소원은 보는 것이었다. 보지 못하는 이들이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자신들에게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나눔 2 예수님을 진정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무언가를 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눠봅시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_ 낮아지고 섬기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_ 긍휼이 필요한 세상에 예수님의 긍휼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3월 넷째 주

가장 큰 계명, 가장 높은 그리스도 마태복음 22장 34-46절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사론의 꽃 예수 (찬송 89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본문을
시작하며

책이나 편지를 읽을 때 글쓴이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표면적인 내용에 매여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에 담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1.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 교훈하십니다(34-40절).
 - 1)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36절)?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답게 율법의 해석에 관한 질문이었다.
 - 2) 예수님이 답하신 가장 크고 우선적인 두 계명은 무엇입니까(37-39절)?
 - ① 첫째 계명(37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② 둘째 계명(39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예수님은 첫 계명에 이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따로 떼어낼 수 없는 성질을 가졌음을 교훈하셨다. 하나님 사랑이 사랑의 뿌리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은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없는 이웃 사랑은 그 자체가 참 사랑일 수 없고(요일 4:15-19),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요일 4:20).
 - 3) 예수님은 이 두 계명에 대해 무엇이라고 덧붙이셨습니까(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규례, 이웃에 대한 규례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요약하심으로 율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셨다.

나눔 1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결여된 이웃 사랑’이 빚어낸 현상은 무엇인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교훈하십니다(41-46절).

- 1)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42절)?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다.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면 그 사랑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요일 4:9-10).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다(마 5:17).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부하듯 율법에 통달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보았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은 율법과 메시아에 대해 무지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질문을 하셨다.

- 2)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칭했습니까(43, 44절)?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예수님이 인용한 다윗의 시는 시편 110편이다. 거기서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는가? 알썩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다(삼하 7:16).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다스릴 영원한 나라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영원한 존재, 즉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 약속의 의미를 알았기에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 3) ‘다윗이 주라고 칭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구약을 믿는 유대인의 상식이었다. 예수님이 인용한 시편 110편 또한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언으로 확실히 인정하는 본문이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다는 사실은, 다윗이 메시아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정치적 메시아로 오는 인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너무나도 자명한 하나님의 말씀조차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나눔 2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 곧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와 우리만의 구주로 제한할 때와 온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 신앙의 양태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봅시다.

함께 기도

삶_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_ 온 세상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 공동체답게 너른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소서.

충성으로 열매 맺는 믿음 마태복음 25장 14-30절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들어 천국에 참여하는 자질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맡기고, 종들이 남긴 달란트를 결산할 때도 절대 금액으로 상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확인하려 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세입니다. 불성실한 종은 주인의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1.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일정 기간 후에 결산합니다(14-23절).

1)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기준은 무엇입니까(15절)?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준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차등 지급한다. 이것은 차별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재능의 차이를 고려해서 달란트를 맞춤 지급한 것이다. 사실 가장 적게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적게 받은 것은 아니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당시 노동자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고액이기 때문이다.

2) 다섯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어떻게 행동했습니까(16-18절)?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기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둔다.

주인은 종에게 달란트를 하사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맡긴 것이다. 주인의 의도는 종이 달란트를 남겨서 더 풍성케 하는 것이었다.

3) 주인은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과 두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19-23절)?

두 사람에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며 칭찬한다.

주인은 다섯 달란트 남긴 종과 두 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칭찬한다. 이것은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가 차등 지급되긴 하지만 각자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똑같이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종들이 남긴 절대 액수가 아니라 종들의 충성 자체를 평가하신다. 다섯 달란트 남긴 자나 두 달란트 남긴 자는 그들이 남긴 절대 액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다.

나눔 1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 없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자원은 무엇인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 주인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을 엄하게 문책하며 징계합니다(24-30절).

1)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가 달란트를 땅에 감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24, 25절)?

주인이 굶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기에 두려워서 감추었다고 한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졌다는 점이다. 즉 주인은 양심도 없이 열매만 탐하는 욕심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다. 왜냐하면 주인은 재능이 가장 적은 종에게도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한꺼번에 맡겼기 때문이다.

2) 주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26절)?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르고 악하다'라는 주인의 평가는 단지 종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장래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에 관한 '언약적 판단'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제멋대로 살았다. 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님께서 맡긴 사명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매우 게으르고 악한 일이다. 주님은 그런 종을 향해 '언약 관계' 단절을 선언하신 것이다.

3) 주인은 신실하지 못한 종에게 어떤 형벌을 내립니까(28-30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이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는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더 이상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인과 언약 관계가 파기된 종이 더 이상 주인의 집에 거할 수는 없다. 또한 주인이 공급하는 자원도 받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그 어떤 사명도 부여받을 수 없다. 악한 종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악한 종이 천국에서 내쫓기는 모습이다. 즉 불충한 종은 천국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며 죄와 사망의 자리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나눔 2 하나님은 우리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성실한지를 보시고 우리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 아래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평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다른지 서로 의견을 나눠봅시다.

특별 나눔 미디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용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유익하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 삶과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미디어를 어떻게 선하게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_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적극 활용하며 하나님이 맡기실 사명에 충성하게 하소서.
공동체_ 은사를 비교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하소서.

4월 둘째 주

부활의 의미 마태복음 28장 1-20절, 고린도전서 15장 1-20절

본문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시고,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봅시다.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그 외 여러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오백여 형제들
 - 증인들의 숫자는 충분하다.
2.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무서워하고 놀람.
 -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 큰 기쁨이 있었다.

나눔 1 예수님의 부활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 1) 사망에 대한 승리
 -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다.
 -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보여주셨다.
 - 이것은 마귀의 권세에 대한 궁극적 승리다.
- 2)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에 대한 보장이다.
 -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지금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

나눔 2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나눔 3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_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공동체_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신앙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마음다해, 말씀과 나눔

4월 둘째 주

부활의 의미 마태복음 28장 1-20절, 고린도전서 15장 1-20절

본문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시고,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봅시다.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그 외 여러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오백여 형제들
 - 증인들의 숫자는 충분하다.
2.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무서워하고 놀람.
 -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 큰 기쁨이 있었다.

나눔 1 예수님의 부활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 1) 사망에 대한 승리
 -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다.
 -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보여주셨다.
 - 이것은 마귀의 권세에 대한 궁극적 승리다.
- 2)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에 대한 보장이다.
 -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지금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

나눔 2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나눔 3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_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공동체_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신앙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마음다해, 말씀과 나눔

4월 둘째 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민수기 13:21-33
본문을 시작하며	같은 상황을 보아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열두 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올라가자 하고, 어떤 이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 포기하자고 말합니다. 현상만 보느냐, 아니면 현상 너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말씀과 나눔	1.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온 수령들이 온 이스라엘에 보고합니다(21-29절). 1)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와 과일을 보여주며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21-27절)? :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공동체 앞에서 보고한다. 즉, 그 땅이 매우 비옥해서 포도와 과일이 풍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증명하기 위해 포도송이를 나무 막대기에 꿰어 왔다. 그러면서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다(참조. 출 3:8). 그런데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다(참조. 28, 29, 32, 33절). 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성읍에 대해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28, 29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거인 족속; 33절)을 보았으며...”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하지만’이라는 부정 접속어로 악평을 시작한다. 즉, 그 땅이 매우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미 그 땅을 장대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탐 보고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능력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현실의 문제만 남게 된 것이다. 땅이 풍요하다는 것도 현실이며 그 땅을 장대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믿음은 성도를 현실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나눔 1> 가나안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그곳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는 삶이 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역경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난관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2.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것을 보았지만,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30-33절). 1) 갈렙이 동요하는 백성을 잠잠케 한 후에 내린 정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30절)? :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머지 열 정탐꾼과 달랐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정보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있었다. 그래서 갈렙은 백성들에게 그 땅은 과연 약속대로 좋은 땅이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독려한다. 2) 갈렙과 함께 갔던 다른 정탐꾼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31절)? :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다른 정탐꾼들은 갈렙의 의견에 반대한다. 가나안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기에 이스라엘은 결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다. 정탐꾼들은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서 지레 겁을 먹고 약속의 땅을 취하고자 하는 용기조차 내지 못한다. 정탐꾼들의 문제는 가나안 백성의 강대함은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한 데 있다. 3)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평합니까(32, 33절)? ① 가나안 땅에 대해(32절):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②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과 비교해볼 때 메뚜기와 같다고 말한다. 스스로 비하하면서 깊은 열등감에 빠진다. 열등감은 헛된 비교 의식에서 발생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자아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문제는 두려움과 공포는 마치 전염병처럼 온 공동체에 퍼진다는 사실이다. <나눔 2>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약속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난관 앞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뚫고 약속을 향해 나아간 경험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또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할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 함께 기도 1) 삶 -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매일 부딪히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2) 공동체 -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삼고,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4월 둘째 주	불의를 떠나는 믿음 민수기 16:16-35
본문을 시작하며	오늘날 공동체 질서가 약화되고 권위를 부정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고라가 그 선봉에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가 표면적으로 내건 기치는 ‘평등’이었으나, 사실 그는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 일당의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일당을 심판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지키십니다.
말씀과 나눔	1. 고라가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 하나님은 회중을 멸하려 하십니다(16-22절). 1) 모세가 고라 일당에게 지시한 일은 무엇입니까(16, 17절)?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고라의 반역은 하나님을 대항해 싸우려는 악한 행위였다. 모세는 반란의 무리에게 다음 날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각기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지 보이고자 했던 것이다. 고라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으로 성막 봉사 업무를 감당했다. 이들은 자신의 성막 봉사 직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직을 시기하였다. 2) 고라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십니까(19-21절)? 여호와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다. 고라가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급히 온 회중에 나타났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회중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 3) 모세와 아론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22절)?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며,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 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백성이 죽임을 당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중보 기도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구하지만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것을 잊지 말도록 간구한 것이다. 나눔 1 모든 것을 권위로 해결하려는 ‘권위주의’는 지양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사람의 정당한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정당한 권위가 인정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이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지 서로 생각을 나눕시다.
	2. 하나님은 고라 일당을 심판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지켜주십니다(23-35절). 1)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가서 회중에게 지시한 일은 무엇입니까(23-27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모세가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악한 무리와 동행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믿음을 결정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할 존재다. 2) 끝까지 고라 편에 선 자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28-35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라 편을 들면서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바닥이 갈라질 때 그들은 그 땅 밑으로 묻히고 만다. 스올 즉 음부,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멋대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나눔 3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며 심판을 미루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함께 기도	삶 _ 악한 길에서 떠날 기회가 주어질 때 속히 떠나게 하소서. 공동체 _ 세워진 질서를 따르고, 마땅히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게 하소서.

성경묵상의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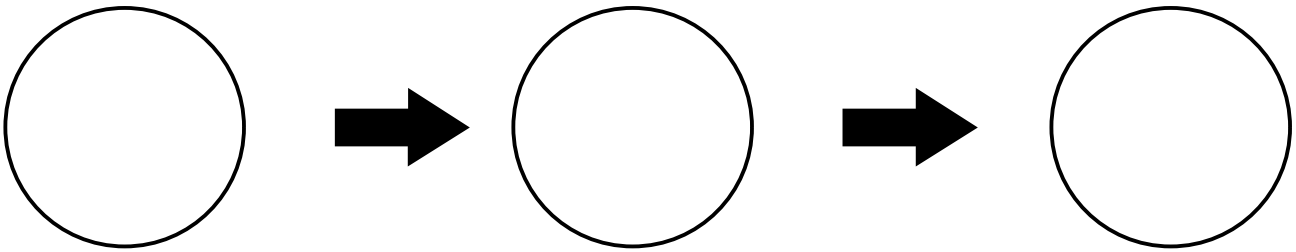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에 관하여)

서론 : 성경, 어떻게 읽고 있는가?

1. 귀납적 접근

- 성경은 귀납적으로 읽어야 한다.
- 본문이 가장 중요하다.
- 본문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

2. 성경해석의 3단계



* 관찰

- 본문의 장르는 무엇인가?
-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가?
- 전반적인 내용 파악

* 해석

-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 적용

- 본문은 나의(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 본문을 나의(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 나는 본문을 근거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월 첫째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21:1-20
본문을 시작하며	‘은혜’가 값없이 누리는 것이라면, ‘공평’은 값을 정확히 계산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이 둘이 정확히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정확히 치르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동시에 은혜로우십니다.
말씀과 나눔	1. 불뱀으로 죽게 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장대의 뱀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1-9절). 1) 이스라엘이 불뱀 재앙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4, 5절)?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 먹을 것과 물을 두고 원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본 사건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기적의 물을 주셨고(20장),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으며(21:1-3),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고 계셨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불평의 원인은 어이없게도 단지 길을 조금 돌아가게 되면서 생긴 어려움이었다. 우리가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손쉽게 삶의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하게 되고, 심지어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 2)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7-9절)? 모세에게 불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시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 하셨다. 이스라엘은 불평하는 데 신속했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데 신속하셨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마 5:45). 둘째,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다. 구원의 뱀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오직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보는 자만 살았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광야의 뱀과 같다고 말씀하셨다(요 3:14-15). 나눔 1 이스라엘은 호르마에서 승리(1-3절)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그래왔듯 떡과 물이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자극하는 나의 떡과 물은 무엇입니까? 나눔 2 장대에 단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요 3:14,15).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바라봄)은 어떤 것이며 믿음을 통해 내가 얻은 생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2. 이스라엘은 모압 경계를 지나 비스가 산까지 행진합니다(10-20절). 1) 이스라엘이 진을 친 아르논은 어느 지역 간의 경계가 되는 땅입니까(13절)?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 광야 40년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한 불평으로 죄를 범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는 멈추지 않았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되는 강으로, 가나안 동편의 아라비아 산지에서 서쪽으로 흘러 사해로 향하는 강이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서쪽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될 가나안 전쟁을 목전에 두었다는 의미였다. 이스라엘이 이곳에 이른 것은 오직 그들을 오래 참으시며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였다. 2) 이스라엘이 이른 브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 있었다. 브엘이라는 단어는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비스가 산을 향하던 이스라엘이 우물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지명이다. 이곳에서 얻은 우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18절). 규와 지팡이는 통치권을 의미한다. 즉,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질서 있게 우물을 얻었다. 둘째, 이 일은 백성들에게 기쁨의 노래가 되었다(17절). 앞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여 불뱀 재앙을 초래했던 모습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나눔 3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성실 덕분에 계속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참조. 히 10:38,39). 나의 불신과 불충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이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은 내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어리석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공동체 _ 은혜 안에서 실패를 털고 일어나, 믿음으로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5월 둘째 주	공평하신 하나님 민수기 27:1-11
본문을 시작하며	‘한동안 한국 사회 안에 ‘금수저’, ‘흙수저’ 같은 출생 환경의 불공평함을 지적하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사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같은 조건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1.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버지 몫의 기업을 요청합니다(1-5절). 1) 슬로브핫의 딸들이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4절)? <u>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 삭제되고, (가나안의) 기업을 받을 수 없었다.</u> 하나님은 가나안의 기업을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인원수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도록 명령하셨다(민 25:52-56). 이 기업은 각 가문의 영원한 땅이 되는 것으로 누구도 마음대로 뺏거나, 소유권을 매매할 수가 없었다(레 25:23; 신 27:17). 이는 가나안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창 17:8; 히 9:15). 하나님은 공평한 기업 분배의 원리를 말씀하셨지만, 슬로브핫의 딸들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바가 없었기에, 분배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남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2) 딸들의 사연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5절)? <u>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u> 모세가 슬로브핫의 딸들의 청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모세가 백성들 앞에 겸손한 지도자임을 알 수 있다. 모세는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성들의 청원을 결코 가벼이 듣지 않았다. 둘째, 모세가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였음을 보여준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에 근거하여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원했다. 이처럼 지도자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여야 한다. 나눔 1 지도자 모세는 슬로브핫 딸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으로써,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동체로, 더 나은 길을 함께 모색하는 공동체로 세워갔습니다.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나눔	2. 하나님은 슬로브핫 딸들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6-11절). 1) 하나님은 슬로브핫 딸들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하십니까(6, 7절)? <u>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라고 하신다.</u>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면, 여성 또한 그 땅의 몫을 얻어야 합당하다. 때문에 하나님은 슬로브핫 딸의 말이 ‘옳다’고 정확하게 짚어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다. 하나님은 때로 남녀의 역할을 구별하시지만, 차별하지 않으신다. 2) 슬로브핫의 딸들로 인해 새롭게 규정된 규례에 따르면 아들이 없는 집안의 기업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8절)? 딸들 슬로브핫의 딸들로 인해 기업에 관한 규례는 세세한 지침이 정해졌다. 아들이 없는 경우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9절),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10절),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이 주어진다. 기업을 물려받은 딸들은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파 간 분배된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민 36:6-9).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가문의 기업 상속과 경계를 철저히 하심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의 성격을 나타내셨다. 3) 새롭게 규정된 기업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규례가 되었습니까(11절)? <u>판결의 규례</u> 처음에는 큰 원리로만 제시되었던 기업에 관한 규례가 슬로브핫 딸들의 청원 때문에 더 구체적인 실정법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본의, 즉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표면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파생된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 지키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우를 범했다(막 7:6). 나눔 2 슬로브핫 딸들의 요청은 단순히 개인적인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의 규례가 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평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뀌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품고 힘써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하나님의 기준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분별하며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하소서. 공동체 _ 이전보다 더 공평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더 공평한 곳으로 만들어나가게 하소서.

5월 둘째 주	공평하신 하나님 민수기 27:1-11
본문을 시작하며	‘한동안 한국 사회 안에 ‘금수저’, ‘흙수저’ 같은 출생 환경의 불공평함을 지적하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사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같은 조건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1.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버지 몫의 기업을 요청합니다(1-5절). 1) 슬로브핫의 딸들이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4절)? <u>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 삭제되고, (가나안의) 기업을 받을 수 없었다.</u> 하나님은 가나안의 기업을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인원수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도록 명령하셨다(민 25:52-56). 이 기업은 각 가문의 영원한 땅이 되는 것으로 누구도 마음대로 뺏거나, 소유권을 매매할 수가 없었다(레 25:23; 신 27:17). 이는 가나안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창 17:8; 히 9:15). 하나님은 공평한 기업 분배의 원리를 말씀하셨지만, 슬로브핫의 딸들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바가 없었기에, 분배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남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2) 딸들의 사연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5절)? <u>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u> 모세가 슬로브핫의 딸들의 청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모세가 백성들 앞에 겸손한 지도자임을 알 수 있다. 모세는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성들의 청원을 결코 가벼이 듣지 않았다. 둘째, 모세가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였음을 보여준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에 근거하여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원했다. 이처럼 지도자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여야 한다. 나눔 1 지도자 모세는 슬로브핫 딸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으로써,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동체로, 더 나은 길을 함께 모색하는 공동체로 세워갔습니다.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나눔	2. 하나님은 슬로브핫 딸들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6-11절). 1) 하나님은 슬로브핫 딸들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하십니까(6, 7절)? <u>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라고 하신다.</u>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면, 여성 또한 그 땅의 몫을 얻어야 합당하다. 때문에 하나님은 슬로브핫 딸의 말이 ‘옳다’고 정확하게 짚어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다. 하나님은 때로 남녀의 역할을 구별하시지만, 차별하지 않으신다. 2) 슬로브핫의 딸들로 인해 새롭게 규정된 규례에 따르면 아들이 없는 집안의 기업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8절)? 딸들 슬로브핫의 딸들로 인해 기업에 관한 규례는 세세한 지침이 정해졌다. 아들이 없는 경우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9절),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10절),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이 주어진다. 기업을 물려받은 딸들은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파 간 분배된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민 36:6-9).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가문의 기업 상속과 경계를 철저히 하심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의 성격을 나타내셨다. 3) 새롭게 규정된 기업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규례가 되었습니까(11절)? <u>판결의 규례</u> 처음에는 큰 원리로만 제시되었던 기업에 관한 규례가 슬로브핫 딸들의 청원 때문에 더 구체적인 실정법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본의, 즉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표면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파생된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 지키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우를 범했다(막 7:6). 나눔 2 슬로브핫 딸들의 요청은 단순히 개인적인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의 규례가 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평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뀌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품고 힘써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하나님의 기준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분별하며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하소서. 공동체 _ 이전보다 더 공평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더 공평한 곳으로 만들어나가게 하소서.

5월 넷째 주	공평하게 다스리는 법 민수기 35:1-21
본문을 시작하며	공평함과 공정함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교육 기회의 격차, 불공평한 직업 선택의 기회, 빈부격차의 문제 등이 많은 사회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비해 가벼운 형벌로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하는 일, 반대로 너무 가혹한 형벌로 과도한 괴로움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공평하고 공정한 공동체를 지혜롭게 가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말씀과 나눔	1.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레위인의 몫을 떼어줄 것을 명령하십니다(1-8절). 1) 별도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기업에서 무엇을 얻습니까(2,3절)? <u>거주할 성읍들과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u> 레위 지파는 오직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으로 구별되었기에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자신들만의 기업을 받을 수 없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처소였다. 그러나 그들도 거주할 공간과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갈 터전은 필요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별도의 기업 대신 각 지파 안에서 일정 부분의 땅을 갖도록 명령하셨다. 2)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서 얻게 되는 성읍은 몇 개입니까(6, 7절)? <u>도피성 6성읍, 그 외 42성읍으로 도합 48성읍이다.</u> 레위인들은 도피성 6개를 포함해 총 48개의 성읍을 얻게 되었고, 그 성읍 인근의 목초지도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 경작할 자기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십일조로 그 생활을 꾸려가야 했고, 그 십일조 안에는 가축이 포함되어 있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목초지에서 그 가축들을 돌볼 수 있었다. 율법은 기업으로 받은 땅의 영구적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성내 가옥의 매매는 허락한다(레 25:23-30). 그러나 레위인의 경우 성내 가옥도 영구적 매매가 금지되었다(레 25:32-34). 3) 각 지파가 레위인의 성읍을 나누어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8절)? <u>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주는 것으로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나눠준다.</u> 하나님은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 철저하게 공평한 기준을 제시하신다. 분배하는 땅의 크기는 지파의 크기에 비례하여 나눠줄 것을 명하셨고, 땅의 위치를 선정하는 일은 공평하게 제비를 뽑게 하셨다(민 26:52-56). 이는 레위인들의 땅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되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요구하신다(눅 12:48). 우리가 주어진 환경의 유불리나, 선천적인 재능의 크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나눔 1 하나님은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레위인에게 성읍을 나누어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소유의 불공평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은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품고 나누어야 할 사역이나, 대상이 있다면 서로 소개해봅시다.
말씀과 나눔	2. 하나님은 도피성 지정을 명하십니다(9-21절). 1) 하나님이 도피성을 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12절)? <u>살인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복수로 죽지 않게 하려고</u> 도피성은 무조건적인 피신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제정하신 공의의 수단이었다. 이스라엘에게는 친족의 손해를 회복케 하는 고엘 제도가 있었고, 여기에는 친족에 대한 복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복수는 오직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 정당한 수사와 재판 기간을 확보토록 하셨다. 2)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사용해서 살인했거나 계획적인 살인을 했을 때에는 살인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16-21절)? <u>반드시 죽여야 한다.</u> 율법은 생명을 생명으로 갚게 함으로 생명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율법의 정신은 비단 육신을 해하는 살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살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혼의 살인도 존재한다. 성경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교훈한다(요일 3:15). 우리가 마음 속 미움과 싸우지 않고, 심지어 미움을 증폭시키는 욕과 헐담을 즐길 때, 이는 의도적 영혼 살인과 다르지 않다. 3) 살인자를 처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19절)? <u>피를 보복하는 자</u> 도피성 제도는 피해자 가족들의 복수가 개인적인 보복심이나 원한을 넘어서 공의의 처벌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처형을 명하신 것은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만일 엄격한 수사와 재판 과정 없이 억울하게 사람을 처형할 경우, 자신들이 죽인 그 사람의 피는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성급하게 감정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했다. 나눔 2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공동체 _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6월 첫째 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로마서 3:21-31
본문을 시작하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차별 없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자기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가 지닌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의’입니다.
말씀과 나눔	1.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러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21-26절). 1)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21, 22절)? <u>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u> 21절은 19-20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19-20절은 1:18-3:20 논의에 대한 최종 결론과도 같다. 즉, 21절의 전환 어구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절망에 빠진 인류를 향해 구원의 소망이 소개된다. 즉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닌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나타난 것이다. 2)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생긴 결과는 무엇입니까(22-24절)? <u>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u> 22절의 ‘예수님의 신실함’이란, 예수님의 삶과 말씀,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모든 종말적 사건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기초가 되어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23-24절에서 ‘의롭다’ 하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것을 방증한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드러내신 것이다. 3)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25, 26절)? <u>화목제물</u> 25절 ‘화목제물’로 번역된 ‘힐라스테리온’은 ‘속죄소’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레위기 16:15을 보면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 피를 ‘속죄소’(힐라스테리온) 위에 뿌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25절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해(25절), 그의 영광을 예수 위에 나타내신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의 ‘신실함’(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할 뿐 아니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신 것이다. 나눔 1 우리는 자기 피를 쏟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덕에,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의로워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교만하거나 타인을 정죄하기 쉽고, 잘 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낙담하기 쉽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봅시다. 2.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성취됩니다(27-31절). 1) 사람이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7, 28절)? <u>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이다.</u>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다. 2)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어떤 방식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29, 30절)? <u>할례자는 무할례자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u> 29-31절은 22절의 모든 믿는 자에 대한 확대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22절의 모든 믿는 자는 1:16의 모든 믿는 자와 연결된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29절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3) 믿음과 율법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31절)? <u>믿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u> 바울은 율법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 사상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율법 자체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성도들은 믿음의 법으로 돌아와야 한다. ‘율법’은 ‘믿음의 법’으로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다. 나눔 2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랑이 바뀝니다. 더는 육체의 일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참조. 고후 12:9; 갈 6:14; 빌 3:3). 내가 자랑하는 것, 또 우리 공동체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저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소서. 공동체 _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지체를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6월 둘째 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로마서 6:1-14
본문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고 죄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과 나눔	1.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멀리합니다(1-7절). 1)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는 생각은 왜 잘못된 것입니까(1, 2절)? <u>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u> 5:20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어떤 이들이 '그러면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라는 꾀변을 늘어놓을 수 있다. 1절의 '죄에 거한다', 2절의 '그 가운데 산다'는 표현은 '죄에 머물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혜로 부름을 받아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야 할 성도가 은혜 더 받기 위해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2)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3-5절)? ① 3-4a절: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 ② 4b-5절: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 3절 예수와 '합하여', 4절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는 '새 출애굽'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2에 서, 광야 세대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다. 즉,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 삶에 대해 죽고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5절의 '연합'이라는 단어는 '함께 자라다'라는 뜻이 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존재와 얽혀 사는 존재이기에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살 수 없다. 3)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6, 7절)? <u>죄의 몸이 죽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다시는 죄에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u>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죄 아래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은 존재이기에 다시는 사망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눔 1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 죄의 종이였다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해봅시다. 2.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8-14절). 1)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겨야 합니까(8-11절)? <u>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u>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 있는 자로 여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사망과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2)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는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12, 13절)? <u>자기 몸(지체)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u> 12-14절은 1-11절의 '연합의 문제'와 15-23절의 '지배의 문제'를 연결하는 다리과 같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권면한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지 말고, 은혜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의미다. 이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죄라고 하는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며 은혜 아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3)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4절)? <u>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u> 사탄이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 사탄은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 깊은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살게 만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이끌어가신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동력은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한다. 나눔 2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기 몸으로 영위하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생각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저희 몸을 몸의 사육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공동체 _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복음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6월 셋째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서 8:31-39
본문을 시작하며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주의 자녀 됨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말씀과 나눔	1. 그리스도인은 적대, 결핍, 고발, 정죄의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31-34절). 1) 우리가 적대, 결핍,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31-33절)? <u>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의롭다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이다.</u> 로마서 8장은 로마서 5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8:1-11에서 생명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며, 5:12-21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임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8:12-30에서 성도가 영광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1-11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이루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므로 로마서 5-8장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8:31-39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성도의 전 생애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다(32절). 이 사랑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대적의 핍박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2) 우리가 대적자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34절)? <u>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u> 31-33절에서 성도가 대적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34절에서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간구’ 때문에 성도는 대적의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32절), 성자 예수님의 간구(34절), 성령님의 중재(26-27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중 안전장치로 그의 백성을 돌보시기에 성도들은 사탄의 도전과 위협,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다. 나눔 1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전감을 가져다줍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이 그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불식시키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35-39절). 1)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35, 36절)? <u>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 등</u> ‘환난’이란 ‘억압, 고난, 고통, 괴로움’을 의미한다. ‘곤고’는 ‘비참한 재난이나 극한 고생’을 의미한다. 고린도후서 12:10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게 받는 고난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 ‘박해’는 ‘물리적 핍박’을 의미한다. ‘환난’과 비슷한 용어로 정치적 사회적 물리적 압제와 폭력을 의미한다. ‘기근’은 말 그대로 ‘배고픔, 굶주림’을 의미하고, ‘적신’은 ‘벌거벗음’을 의미한다. 기근이나 적신 모두 제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 할 때 경험하는 생계의 곤궁함을 의미한다. 위험, 칼, 죽음 등 역시 제자로 살아가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극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37절)? <u>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u> 성도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순종과 사랑)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이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성도의 고난은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이기때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3) 고난의 현실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입니까(38, 39절)? <u>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u> 어떤 물리적 핍박이나, 사탄의 방해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어낼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받는 성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오직 성령을 보내어 돌보신다(요 14:17-18).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체현되는 것이다. 나눔 2 죄의 세력은 배고픔, 가난, 폭력, 학대, 소외, 차별, 질병, 죽음 등 여러 가지 고통으로 성도를 괴롭힙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육체적, 사회적 고난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나눔 3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서로 들려줍시다.
함께 기도	삶 _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공동체 _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당하는 지체를 격려하며 함께 고난을 이겨내게 하소서.

6월 넷째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로마서 12:1-8
본문을 시작하며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마땅한 삶의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은사를 나누며 한 몸을 이룰 때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말씀과 나눔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1, 2절). 1)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1절)? <u>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함.</u> 고대 사회에서 제사는 보편적인 문화였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전(신전)에서 드리는 종교적 제사는 삶의 일부였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더 이상 이방 우상에게 제사할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할 수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새로운 제사를 선포한다. ‘산’(living)이라는 말과 ‘희생 제물’이라는 말은 원래 서로 함께 쓸 수 없는 용어다. 왜냐하면 희생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피를 흘려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산’(living)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바울은 ‘영적 예배’라 지칭한다. 여기 ‘영적 예배’라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전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기에 이후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통해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음을 바울이 선포한 것이다. 2) 거룩한 예배자가 삶 속에서 ‘지양해야 할 것’과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2절)? <u>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함.</u> 이 세대, 즉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 세대’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런 세상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한다. 바울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한다. 이전에 세속적 가치관이 자신의 삶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예배다. 나눔 1 일상 속에서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시대 풍조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각각 무엇이며, 이 둘을 분별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2.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영적 유기체입니다(3-8절). 1) 교회의 구성원이 서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3절)? <u>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u> 3-8절의 핵심 주제가 3절의 명령에 담겨 있다. 4-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다양한 은사들을 질서 있고 통일성 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즉,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가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바른 방향으로 성장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믿음으로 자신을 성찰하되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과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2)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4, 5절)? <u>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다.</u>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에 통일성을 가져야 하지만 각 지체의 은사가 다르기에 다양성을 갖고 있다. 다양성은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체의 존재 목적이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는 것처럼 교회의 다양한 성도들의 은사는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3) 각 지체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합니까(6-8절)? <u>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신실하게 봉사해야 한다.</u> 봉사의 핵심 원리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다. 교회 성도들의 은사는 각각 다르고 다양하다.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이들의 봉사를 포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눔 2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 은사를 공동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나눔 3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은사와 직분을 비교하며 경쟁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협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함께	삶 _ 세상이 부여하는 틀을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	공동체 _ 다양한 은사가 조화롭게 발휘되어 다채롭고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

7월 첫째 주	바른 일꾼을 세우기 위한 교훈 디도서 1:1-9
본문을 시작하며	바른 교훈과 적절한 책망은 쉽게 흐트러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는 길입니다.
말씀과 나눔	1.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합니다(1-4절). 1)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1,2절)? <u>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u>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를 뜻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직 진리와 영생의 복음을 위해 세우신 직분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분명히 했다(갈 1:1). 2)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3절)? <u>전도</u>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첫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 한다(롬 1:2). 둘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다(요 1:14). 셋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천사를 통해 전하셨다(히 1:1; 눅 1:19). 넷째, 사람의 입을 통해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즉 전도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람의 입을 빌리지 않고 직접 자신을 드러낼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가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명인 이유다. 3) 디도는 무엇을 따라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습니까(4절)? <u>‘같은 믿음’</u> 바울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전 4:14-15). 디도는 분명 그러한 이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같은 믿음을 따라”라는 표현을 더함으로써 바울과 디도의 신앙고백이 온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영적 혈육이 된다. 나눔 1 교회는 ‘같은 믿음’으로 묶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일반적인 조직이나 혈연으로 묶인 가족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 내가 노력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2.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와 감독의 기준을 알려줍니다(5-9절). 1) 장로의 자격은 무엇입니까(6절)? <u>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u> 장로의 자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점검된다. 자신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며, 가정 또한 그러해야 한다. 결국 교회 지도자의 제일 요건은 신앙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냐 하는 것, 바꿔 말해 신앙 인격과 삶이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가? 그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기보다는, 그저 교회에서 얼마나 활동적인가, 신앙 연차가 얼마나 되었는가와 같은 부차적인 요건들을 기준으로, 성급하게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2) 감독의 자격은 무엇입니까(7-9a절)? <u>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u> 목회자인 감독 역시 그의 신앙 인격과 삶을 자격 요건으로 삼고 있다. 목회자의 자격 요건이 막연한 신비나 감정이 아니라, 명백히 드러나는 신앙 인격과 행실에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목회자적 소명을 확인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3) 감독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9b절)? <u>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한다.</u>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은 목회자에게 참으로 곱고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도가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는다면 감사할 일이나, 반발하거나,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목회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오늘날의 목회에는 위로나 격려는 풍성한 반면, 권면이나 책망은 잘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목회자는 성도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때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감독은 그 일을 위하여 세움 받은 직분이기 때문이다. 나눔 3 교회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을 보면, 지도자가 할 일을 알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지향할 성숙한 인간상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보면서,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가 힘써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소서. 공동체 _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각자 본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7월 둘째 주	성도를 위한 권면과 책망 디도서 2:1-15
본문을 시작하며	‘성도 간의 위로’가 영혼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의 봉대라면, ‘권면’은 약이고 ‘책망’은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달갑게 받으면서 권면이나 책망은 곱끄러워하며 거절한다면 결코 바른 신앙, 바른 공동체로 가꿔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더욱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말씀과 나눔	1. 바울은 나이와 성별, 사회적 지위를 따라 지켜야 할 도리를 교훈합니다(1-10절). 1) 적실한 교훈을 주기 위해 바울이 언급한 집단은 누구입니까(2-6, 9, 10절)? <u>‘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중’</u>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통된 신앙 원리들이 있다. 그러나 나이와 형편에 따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신앙 원리들도 있다. 마귀의 공격은 무작위적이지 않다. 약한 곳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의 상식이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성향과 약점을 잘 파악하는 지혜가 매우 중요한 이유다. 2) 바울이 교인을 교훈해야 하는 디도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7, 8절)? <u>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말을 해야 한다.</u> 가르치는 자의 가장 우선되는 덕목은 자신이 먼저 그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는 일이다. 3) 교회 구성원이 각자 자리에서 바른 교훈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5, 8, 10절)? <u>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교훈이 빛난다.</u> “예수가 싫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라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닮지 않은 신앙인들의 위선을 꼬집는 말이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과 우리가 의롭지 못해 비난당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다. 나눔 1 모든 성도는 바른 교훈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처한 조건과 형편에 따라 경계해야 하는 유혹과 힘써야 하는 실천이 다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나는 특별히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나눠봅시다. 나눔 2 성도가 보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말씀에 대한 비방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도록 만드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은 무엇인지, 반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2.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11-15절). 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11-13절)? <u>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u>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두 가지 작용을 한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통로가 되어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변화되게 한다. 둘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역시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흠 없이 온전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소망하게 하는 일이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14절)? <u>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u>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위를 불러일으킨다. 3)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인 디도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15절)? <u>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u> 바른 권위를 시행하는 일과 그릇된 권위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 모든 정당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사람은 반드시 바른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롬 13:1).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듯,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지도할 권위를 부여받았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가 가벼이 여겨지지 않도록 소중히 지켜가야 하며,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때로는 권면과 책망으로 성도들을 지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 성도들 역시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며 지도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눔 3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로 새사람이 되게 합니다. 불경함과 정욕을 버리게 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 때로는 사람의 권면과 책망도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바꾼, 하나님의 은혜 또는 누군가의 권면과 책망을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처한 조건과 형편에서 유혹을 물리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공동체 _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적절한 권면과 책망을 통해 복음을 빛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7월 셋째 주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 예레미야 3:19-4:4
본문을 시작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때문’이라는 답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는 정확한 이유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말씀과 나눔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은 잠시나마 죄를 깨닫습니다(3:19-25). 1)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기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19절)? <u>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셨다.</u>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건지셨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 또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그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일뿐이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로 너무나도 단순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2)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습니까(20, 21절)? <u>하나님을 속였고,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u> 결혼이란, 두 사람이 사랑을 맹세하는 인격적인 연합임과 동시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률적 계약이다. 그러므로 간음은 인격적 관계를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법적 계약을 훼손하는 위법적 범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반을 간음에 빗대신 것은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악한 일인지를 표현하신 것이다.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길을 더욱 굽게 하고 하나님을 잊었다. 3) 부끄러운 우상이 삼킨 것은 무엇입니까(24절)? <u>청년의 때로부터 그들 조상들의 산업인 양 떼와 소 떼와 아들과 딸들을 삼켰다.</u>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은 더욱 큰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얻은 모든 산업과 자녀를 잃었다. 이처럼 우상은 그것을 기대는 자들을 파괴하는 속성을 가졌다. 칼에 의지하는 자는 칼로 망하고, 돈에 의지하는 자는 돈으로 망한다. 나눔 1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나눔 2 우상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소망하는 그 무엇입니다. 더 행복해지려고 우상을 의지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일 수 없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4:1-4). 1)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이키려면 무엇으로 맹세하여야 합니까(2절)? <u>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와 삶을 두고 맹세해야 한다.</u> 회개는 단지 입술로만 돌이키는 일이 아니다. 참된 회개란, 진실한 삶,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참된 회개에 이른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면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께 복을 빌고, 여호와를 자랑하게 된다(2b절). 즉,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로 보건데,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진실함과 정직과 공의를 회복하는 일이다. 2)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무엇을 베는 할례를 요구하십니까(4절)? <u>마음 가죽</u> 삶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본문은 이를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신체의 일부를 베는 할례를 행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였다. 그러나 할례가 단순히 육체의 예식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 (신10:16) 나눔 3 진정한 회개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 가죽을 베는 중심의 ‘결단’과 우상을 좇던 삶에서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으로의 ‘변화’로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일, 작더라도 내 삶의 태도와 실천을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삶을 위협하는 마음의 우상을 몰아내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공동체 _ 진정한 회개가 살아있는 공동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7월 넷째 주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 예레미야 7:1-15
본문을 시작하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성전 제사와 예배를 멈춘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 외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형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중심과 삶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일 수 없습니다.
말씀과 나눔	1. 하나님은 거짓된 성전 예배를 거절하시고, 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촉구하십니다(1-7절). 1) 예레미야는 어디에 서서 누구에게 여호와와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2절)? <u>여호와와 집 문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u>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신자를 향해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러 오는 이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 받았다. 진리의 복음은 신자에게도 늘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 마음이 손쉽게 부패하며, 진리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일은 때로 우리에게 권태감을 준다. 그러다 보면 뭔가 참신한 설교, 새로운 설교를 찾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새로워져야 하는 건 말씀의 전달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른다. 2)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에 머물 방법은 무엇입니까(3, 5-6절)? <u>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u> 유다 말기의 이스라엘은 불안한 국제 정세와 이방 민족의 위협 앞에서 가난한 땅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흥 제국 바벨론과 전통적 강국 애굽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교적 줄타기를 하기도 했고, 나름대로 군세를 정비해서 저항해보려고도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을 소유하는 비결은 그들의 외교적 전략이나, 군사적 힘이 아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가꾸어갈 때, 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될 것이었다. 3) 하나님이 믿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4절)? <u>“이것이 여호와와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이다.</u>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진실보다, 보이는 외형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 성전의 성전 됴은 외형이 아니라,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거하시느냐의 문제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신다. 나눔 1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거짓 예배를 경고하시며, 그들에게 바른 삶과 정의를 촉구하십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고, 형식적 종교적 신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 하나님은 거짓된 성전 예배를 징벌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8-15절). 1)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이 지닌 어리석은 확신은 무엇입니까(9, 10절)? <u>자신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다.</u> 구원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확인하지도 않고, 손쉽게 자기 구원을 확신해버리는 어리석은 신자들의 행태를 꼬집는 말이다. 유다 말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다.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 끊임없이 부패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을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며, 결코 이방의 손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다. 2) 유다 백성은 성전을 무엇으로 전락시켰습니까(11절)? <u>도둑의 소굴</u>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강력하게 질책하셨다(마 21:13). 제사를 빙자하여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상행위와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었다. 결국 성전의 타락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3)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3절)? <u>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u>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연약하여 죄에 빠질지라도, 말씀을 듣는 겸손한 귀와 진실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나눔 2 구원에 합당한 삶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허상이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약 2:26). 나의 믿음이 참이고 나의 구원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내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	삶 -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공동체 -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7월 다섯째주	헛된 우상을 버리라 예레미야 10:1-16
본문을 시작하며	참 신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거짓 신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정확하게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기에 인간의 욕망만큼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쟁의 신, 농사의 신, 다산의 신 등 수많은 우상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 우상은 결국 사람의 욕망이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말씀과 나눔	1. 하나님은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1-5절). 1)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2절)? <u>하늘의 징조</u>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많은 우상들이 자연을 달래어 자신의 안위를 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기에 자연 현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자연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더욱 불가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들이다. 2)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3절)? <u>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다.</u> 오늘날에도 액운을 몰아내고, 행운을 가져온다는 부적이나, 기물을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물건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 신 그 자체라고 여겨졌던 우상은 어떠했겠는가. 그 누구도 우상을 단순한 물체라고 여길 수 없던 시대였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단순히 나무 조각이며, 기술자가 만든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호히 교훈한다. 진리는 어리석은 두려움을 벗겨내고, 세상의 진실을 보게 하는 힘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진정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한다(요 8:32). 3)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5절)? <u>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u> 우상의 본질은 단순하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사람의 손에 의해 이리저리 움직여진다. 자기 몸조차 사람의 손을 빌려 움직여야 하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해치거나, 복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눈에 세워둔 허수아비라도 그것을 사람이라 믿는 새들에게는 강한 능력을 갖는 법이다. 이처럼 우리가 헛된 두려움을 갖는다면, 허수아비도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신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나눔 1 불필요한 두려움은 헛된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눔 2 우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욕심을 채우려고 만든 자구책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서 가장 확실한 것 같지만, 실상 가장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모든 우상은 헛것이며 우리가 경배할 참 신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6-16절). 1)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15절)? <u>헛것이며, 망령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u> 우상은 헛된 것이다. 헛되다는 것은 실상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라는 말이다. 즉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 실체를 갖게 된 원인은 단순하다.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이 그것에 실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형상을 그려냈고, 인간의 손이 그것을 만들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때, 죄인의 마음에서 나온 우상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2)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10, 16절)? <u>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이시다.</u> 우상은 보이지만 실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실재하신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심판하는 영원한 왕이시다(10절). 하나님의 위대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셨다(16절). 하나님께서 단지 창조주와 심판주로만 계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너무도 먼 우리 같은 죄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 되기로 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얻었다. 나눔 3 우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왕이심을 나타내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좇아 살게 하소서. 공동체 _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8월 첫째주	거절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14:1-12
본문을 시작하며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임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피곤하여 부르짖습니다. 들짐승도 자기 새끼를 낳아 땅에 버릴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가 백성을 대신하여 죄를 자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 거부하십니다. 예언자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나눔	1. 유다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1-6절). 1) 가뭄을 만난 유다 백성의 형편은 어떠합니까(3, 4절)? 귀인들이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린다. 이스라엘 사회와 자연환경에 파국적인 재앙이 임하였다. 백성이 물을 구하기 위해 부르짖어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땅에 비가 없어 온 지면은 갈라지고 그 어떤 곡식도 자랄 수 없었다. 땅은 더 이상 생명과 자유의 터전이 아니라 죽음과 절망의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땅이 백성을 토해낼 것을 레위기는 미리 경고했다(참조. 레 18:24-30). 온 지면이 가뭄으로 인해 생물에겐 어떤 자원이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땅이 백성을 토해내는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임한 가뭄이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다 땅의 짐승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5, 6절)? 들의 암사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림. 들나귀들: 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혈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다. 암사슴, 들나귀 들은 원래 가뭄에도 잘 적응하며 사는 생물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마저 극한 가뭄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만다. 이 가뭄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전 우주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암사슴과 들나귀가 쓰러지는 상황에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 재앙을 막아낼 수는 없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심각한 가뭄은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나눔 1 유다에 든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이상 기후 현상 등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2.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7-12절). 1) 예레미야가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내용과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7-9절)? ① 자백(7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② 간구(9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선지자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중보기도하고 있다(7절). 선지자는 하나님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께 속한 자’임을 아뢴다(9절). 선지자는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가뭄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고백한다. 선지자는 백성의 죄를 잘 알기에 감히 하나님께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접적으로 호소한 것이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감히 구원을 바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기도했다. 2)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11, 12절)? 유다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심. 그들의 금식과 기도와 제사를 받지 않고 그들을 멸하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거절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어 은총을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을 심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부터 더 이상 어떤 기도나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할 심판은 확정되었고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된다. 지혜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회개한다. 3)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10절)? 그들이 여전히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뭄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유다 백성이 어그러진 길 즉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하는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그 어떤 번제를 드릴지라도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백성의 죄가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런 심판의 상황까지 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해야 한다. 심판의 시대에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나눔 2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다 백성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의 일원으로서 자백과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인 내가 공동체를 위해 드릴 기도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나눔 3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는 백성이 여전히 어그러진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을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는 선지자의 중재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함께	삶 _ 공동체의 아픔과 문제를 제 것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공동체 _ 크고 번성하는 공동체가 되기 전에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

8월 둘째주	자유로우신 하나님 예레미야 18:1-12
본문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자기 뜻대로 창조하실 것을 교훈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자유로운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의 백성이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길 고대하십니다.
말씀과 나눔	1.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십니다(1-6절). 1)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관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1-4절)? <u>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손에서 터지자 토기장이는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u>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실 거라고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기 때문이다. 토기장이의 작업장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 남동쪽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 부근에 있었을 것이다. 예레미야 19:2에 의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곳을 ‘하시드문’, 즉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 불렀다. 이곳에서 선지자는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흙을 이용해서 터지게도 하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걸 보았다. 토기장이는 ‘녹로’(물레)를 회전시켜서 그릇을 만들다가 좋은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진흙을 이겨 다른 그릇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 모든 행위가 토기장이의 마음과 의지에 달려 있다. 2) 하나님이 토기장이 일을 통해 백성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무엇입니까(5, 6절)? <u>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u> 그릇을 만드는 모든 주권이 철저히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듯이, 백성을 선택하거나 유기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유다 백성의 자기중심적인 구원 신학에 대해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리신다. 즉, 혈통적으로 유다 백성이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 구원이 보장된다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은 그 누구라도 부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유로운 심판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다. 심판과 구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토기장이의 작업 과정을 통해 보여주셨다. 나눔 1 백성을 심판하거나 구원할 자유로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지닌 삶의 태도는 서로 어떻게 다를지 이야기해봅시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백성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7-12절). 1) 하나님은 멸하려던 민족이나 국가가 죄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십니까(7, 8절)? <u>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셨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u> 7-10절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주권이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이방 민족이나 국가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심판받을 수 있고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죄를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받아 주실 것이다. 2) 하나님은 굳건히 세우려던 민족이나 국가가 악을 행하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9, 10절)? <u>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하신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u> 아무리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실지라도 만일 그 백성이 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구원 계획을 철회하실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철회하시고 그 땅을 저주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방 민족의 구원과 심판도 이스라엘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의 신학적 특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3)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회개 촉구에도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11, 12절)? <u>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계획대로 행하며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다.</u> 하나님은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할 뿐 아니라 회개도 권면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백성들은 끝내 자기 길을 견졌다고 고집한다. 이 경우에 남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뿐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패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권면마저 무시한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가진 신학과 전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나눔 2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재앙을, 악에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악한 길’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의 ‘길과 행위를 이름답게’ 할 수 있는지 나눠봅시다. 나눔 3 유다 백성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악한 길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구원과 심판에 대한 자유로운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공동체 _ 이미 얻은 구원 안에서 방종하지 않고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가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

8월 셋째 주	설득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0:7-18
본문을 시작하며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매우 수고롭고 힘든 일임을 토로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백성이 오히려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나눔	1. 말씀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7-13절). 1)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조롱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7, 8절)? <u>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이다.</u>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설득)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수용과 환대가 아니라 배척과 조롱이다. 이 일에 대해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토로한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는 ‘주께서 나를 속이시므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속았다고 말을 한 것이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외치는 예루살렘의 ‘파멸’과 ‘패망’의 메시지는 아직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미래에 성취될 것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예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하며 조롱한 것이다. 2)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9절)? <u>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u>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수록 백성들은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저주한다. 심지어 친한 벗도 예레미야를 배신하며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염원한다. 선지자는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득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불평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언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예레미야가 핍박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11절)? <u>두려운 용사 같으신 하나님이 예레미야 자신과 함께하시기에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그들이 큰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u> 10절의 ‘사방이 두려워함’(마골밋사빕)이라는 말은 원래 예레미야가 바스훌에게 지어준 별명이다(참조. 렘 20:3). 즉 예레미야를 채찍질하고 때린 바스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내용을 담아 예레미야가 바스훌에게 지어준 이름이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용어를 예레미야에게 조롱하듯 돌려준다. 이제는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며 떨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예언자는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대적을 이기고 보복하실 것을 선언한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백성들에게 조롱받는 신세지만 하나님을 용사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 나눔 1 하나님에게 설득(권유)당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붙이신 영적인 불은 무엇인지,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사역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나눔 2 예레미야는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말씀 사역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승리의 확신이 무엇인지, 왜 그 확신이 필요한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2. 예레미야는 자신의 절망을 토로합니다(14-18절). 1)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14-17절)? <u>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어머니의 태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한다.</u> 예레미야 1:5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이미 알았다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렘 1:5). 그런데 바로 그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비관적 자세를 넘어서 자신의 직무 자체에 심각한 회의에 빠진 것이다. 예언자에게 복잡한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불타는 사명감이지만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받는 조롱과 수치심이다. 그래서 예언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며 자기 삶을 저주한다. 2) 예레미야가 이토록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8절)? <u>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겪는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움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u> 본문은 선지자의 탄식을 통해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선지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선지자의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고 복된 삶이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특별한 예언 사역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선지자의 입에서 탄식이 나올 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예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다. 선지자의 운명은 말씀 사역이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영광으로 알고 그 길을 걷는 것이다. 나눔 3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대로 살면서 겪는 고난과 슬픔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기에 겪는 아픔은 무엇인지 나누고, 서로 아픔을 위로합시다.
함께 기도	삶 _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공동체 _ 고난이 있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보듬으며 함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8월 넷째 주	선택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4:1-10
본문을 시작하며	바벨론 포로 당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좋은 무화과이며, 예루살렘에 남은 이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수납한 백성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며 끝까지 고집부리는 백성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1.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것을 보이십니다(1-3절). 1)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1절)? <u>여호와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u>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고냐(여호야긴)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갈 때다(1절).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하 24:10-16에 잘 나타나 있다. 애굽 왕 느고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함으로써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간다. 그후 여고냐(여호야긴) 왕이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리고 여고냐는 바벨론 땅에서 37년 만에(주전 560년)에 사면된다(왕하 25:27-30).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은 시드기야가 아닌 여고냐를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으로 생각했다. 비록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지만 백성들은 시드기야를 여고냐의 대리자로 여겼다.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는 이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2)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는 각각 어떤 상태였습니까(2, 3절)? <u>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u> 한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 다른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를 담고 있었다. 좋은 무화과는 좋은 백성, 나쁜 무화과는 나쁜 백성을 상징한다. 좋고 나쁨에 대한 궁극적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좋다’(히,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4에 처음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성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평가가 아니라 관계적 평가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선이며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것이 악이다. 이런 면에서 무화과의 좋고 나쁨은 과일의 상태를 말한 게 아니라 과일로 상징되는 백성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좋은 무화과며,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나쁜 무화과다. 나눔 1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심으로 때에 맞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과 형편에 적절하게 말씀을 주신 경험을 나눠봅시다.
말씀과 나눔	2. 하나님은 두 종류의 무화과가 상징하는 바를 알려주십니다(3-8절). 1)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4, 5, 8절)? ① <u>좋은 무화과(4, 5절): 갈대아 땅(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u> ② <u>나쁜 무화과(8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u> 바벨론 포로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평가하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이며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는 단지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관계적 판단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가 되는 심판을 선히 받아들인 자는 좋은 백성이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한 자들은 나쁜 백성이다. 2)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 대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6, 7절)? <u>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u>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좋은 무화과다. 비록 예루살렘의 패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게 받아들이는 자가 좋은 무화과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백성은 당장은 비참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회복될 자들이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들어 있는 놀라운 역설은 이스라엘의 패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징계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묵묵히 받아들이며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참된 믿음이다. 3)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에 대해 무엇을 예고하십니까(9, 10절)? <u>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과 조롱을 당하게 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멸절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다.</u>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자부할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멸절할 자이며 오히려 진짜 ‘남은 자’는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이다. 여고냐(여호야긴)가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사면된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다. 이 사건은 나머지 백성도 해방될 것에 대한 소망의 신호탄이 되었다.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바벨론이 배푼 정치적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배푼 은혜다. 역설적으로,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었다. 나눔 2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자기 죄를 반성하고 뉘우친 사람들입니다. 회복의 약속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나눔 3 애굽으로 피한 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이전의 삶을 고집한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면한 것이 도리어 독이 되어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편안함이 하나님의 인정은 아닙니다. 편안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때에 맞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공동체 _ 안온한 현실에서 안심하지 않고,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좇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	---

9월 첫째 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열왕기상 1:1-10
본문을 시작하며	9월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입니다(1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2주 ‘말씀으로 세우는 집이 영원하다’, 3주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백성’, 4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집’). 평안하고 안전한 가정과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처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된다면, 그곳은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1. 나이 많은 다윗은 몹시 쇠약해졌습니다(1-4절). 1) 시종들이 처녀를 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 2절)? <u>나이 들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다윗을 따뜻하게 하려고</u>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특히 그의 삶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며 일약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가 된 후에는 용병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했다. 사울이 죽고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른 지파들과 7년 반 동안 내전을 치러야 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하셨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대상 22:8). 이처럼 거친 삶을 헤쳐 나온 용사 다윗에게도 체온조차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인생의 황혼이 찾아왔다. 2) 다윗을 시종들게 된 처녀는 누구입니까(3절)? <u>수넵 여자 아비삭</u> 아비삭의 출신지인 수넵은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11km 지점에 있는 잇사갈 지파의 성읍이었다. 수넵은 비옥한 평야 지대로 미인이 많기로도 유명한 지역이었다. 수넵 여인 아비삭은 다윗과 잠자리를 같이하지는 않았으나(4절), 사실상 후궁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뒤,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형 아도니야의 요구를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그를 처형하였다(왕상 2:20-25). 나눔 1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젊은 용사가 제 한 몸 가누지 못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던 군주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다윗 왕의 쇠약한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한 바를 나눠봅시다.
말씀과 나눔	2. 다윗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도모합니다(5-10절). 1) 아도니야가 왕이 되려고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5절)? <u>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오십 명을 준비하였다.</u>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야의 동생인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정하신 바가 있었다(대상 22:8-10).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도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했다(왕상 1:28-30). 그러나 아도니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과 아버지의 지지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왕위에 오르려 했다. 아도니야가 군대를 모은 것은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다. 2) 아도니야는 다윗에게 어떤 아들입니까(6절)? <u>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로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u> 아도니야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다. 만형 압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다가, 다말의 친오빠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 보복 살해당했다. 이후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했다. 둘째 길르앗은 어린 시절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 시점에서 아도니야는 다윗의 아들 중 가장 연장자였다. 그는 용모 또한 준수했고, 다윗의 사랑도 받고 자랐으니, 스스로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왕이었다. 3) 아도니야가 잔치에 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10절)? <u>선지자 나단, 브나야와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u> 아도니야가 반역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에 초대하지 않은 이들의 성격은 명확하다. 가장 먼저는 아버지 다윗이 계승자로 지목한 솔로몬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뜻을 온전히 따를 다윗의 충복들이 그 다음 대상이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잘못을 고할 만큼 올곧은 인물이었으며, 브나야는 압살롬의 반란 때에도 다윗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용사였다. 이처럼 바른 신앙과 올곧은 인격을 가진 이는 때로 누군가에게는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눔 2 다윗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자, 아도니야는 자기 힘을 과시하며 왕좌를 차지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뜻을 성취하기에 분주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도니야 같은 모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나눔 3 아도니야는 준수한 용모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정치가로서 좋은 재능이지만, 그는 자기 형 압살롬처럼 그 재능을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재능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이며, 내게 주신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함께	삶 _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	공동체 _ 주어진 재능과 은사로 서로 섬기며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

9월 둘째 주	말씀으로 세우는 집 열왕기상 2:1-12
본문을 시작하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이웃에게 남길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 말에는 분명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다윗왕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간곡히 전합니다.
말씀과 나눔	1. 다윗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1-4절). 1) 죽음을 앞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1, 2절)? <u>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명했다.</u> 어쩌면 다윗은 대장부나 용사와 같은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는 목동이었고, 수금 연주로 유명할 만큼 섬세한 감정을 가진 예술가였다. 다윗의 손에서 나온 많은 시편은 다윗의 예술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런 다윗이 평생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 머물며 용사요,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이 가진 담력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의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2)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3절)? <u>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말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다.</u>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란, 단순히 인생사가 쉽게 술술 풀려나가는 편한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늘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다윗의 삶이 것처럼 고난으로 점철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며,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삶이다. 반대로 아무리 부유하고 편안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 멀다면, 그 끝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다. 3)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때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4절)? <u>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u> 솔로몬과 자손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삼상 2:30). 사울 왕은 이 지점에서 실패했기에, 그의 왕조는 단 한 대로 끝나게 되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므로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받았다(삼하 7:12-13). 이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다(마 1:17-23). 이제 그의 후손들이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가를 굳건히 지키실 것이다. 나눔 1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란 자신의 용맹과 담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붙드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말씀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용기와 결단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2. 다윗이 상과 벌을 줄 이들을 알려줍니다(5-12절). 1)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저지른 악행은 무엇입니까(5절)? <u>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고 피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u> 요압은 다윗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스루야의 아들로서, 다윗 시대에 군대 장관을 지내며 왕국 내에서 큰 권한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그는 비록 다윗을 배신한 적은 없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첫째,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은 사울 왕가의 사람 아브넬을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살해했다(삼하 3:24-39). 요압의 행동은 오랜 내전 끝에 평화를 찾은 이스라엘을 다시 분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다. 둘째,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삼하 18-20장). 이는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무고한 이들을 죽인 악행이었다. 2) 길르앗 바르실래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7절)? <u>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다윗을 도왔다.</u> 바르실래는 요단 강 동편에 거주하던 노인이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을 건넌을 때, 다윗과 군사들에게 음식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도왔다. 당시 상황이 다윗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음에도 바르실래는 다윗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한 까닭에 다윗이 반란을 진압한 후, 바르실래에게 왕궁 행을 권유하였으나, 바르실래는 나이를 이유로 고사하면서 자기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부탁하였다(삼하 19:33-38). 3)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에게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8절)? <u>다윗이 마하남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였다.</u>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가던 다윗에게 혹독한 저주의 말을 퍼부은 인물이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이자, 사울 왕의 친족으로서, 사울 왕가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한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었다(삼하 16:5-8). 이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자, 시므이는 급히 환영단을 이끌고 다윗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윗은 그런 시므이에게 아량을 베풀었고,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삼하 19:18-23). 이는 반란으로 혼란해진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한 다윗의 용단이었으나, 그렇다고 시므이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나눔 2 무고한 피를 흘려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린 요압의 행동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가정과 교회 등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태도, 혹은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나눔 3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이들의 선행은 대대로 기억되고, 그들의 자손까지 복을 누립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주었던 이들을 소개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믿음의 담력을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소서. 공동체 _ 평화를 깨뜨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서로 선한 이웃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

9월 셋째 주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백성 열왕기상 5:1-18
본문을 시작하며	성도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말씀과 나눔	1.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요청합니다(1-6절). 1)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재료로 쓸 백향목을 달라고 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절)? <u>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u> 두로는 이스라엘 북부 접경 지역의 도시 국가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무역 도시였다. 히람은 항구에서 지중해 쪽으로 730여 미터 떨어진 암반을 요새화하여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다윗 시대에도 왕궁 건설을 돕기 위해 건축 자재와 인부들을 보냈던 바가 있었다(삼하 5:11-12). 이러한 우호 관계는 솔로몬 때에까지 이어져, 이방인이면서도 성전 건축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처럼 좋은 관계는 선한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롬 12:18)고 교훈하였다. 2)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3절)? <u>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려야 했다.</u>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다윗 가문과 성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하시는 일이었다(삼하 7:4-12). 둘째,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 다윗은 성전 건축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인 까닭이었다(대상 22:8). 셋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때에 찾아온 온전한 평화의 시기가 성전 건축의 적기인 이유였다. 3)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5절)? <u>“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u>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지만, 그의 마음만은 기쁘게 받으셨다(왕상 8:18).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 사람의 열망이나 헌신으로 주도되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된 우리 삶을 세wig는 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거룩함을 열망해야 하고, 또한 헌신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해야만 한다. 나눔 1 히람은 이방인이지만 다윗을 사랑했기에 성전 건축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 그것을 본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어떠한 모습이 불신자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만드는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나눔 2 다윗은 성전 건축을 열망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신 경험을 나눠보고,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이야기해봅시다. 2. 솔로몬이 역군들을 세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목과 돌들을 갖추었다(7-18절). 1) 솔로몬의 청을 듣고 두로 왕 히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7,8절)? <u>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솔로몬이 원하는 재목을 주기로 약속했다.</u> 히람이 솔로몬의 제안을 크게 기뻐한 것은 단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우호 관계 때문만은 아니었다. 두로 지역은 좁은 해안 지대인 까닭에 작물 재배가 여의찮았고,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따라서 솔로몬과의 거래는 두로에게도 매우 유익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거대한 성전 공사를 실행할 만큼 강성해진 이스라엘의 국력은 이방인 히람조차 여호와를 인정하게 할 만큼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2) 재목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낸 것은 무엇입니까(11절)? <u>해마다 궁정 음식물인 밀 이만 고르와 맑은 기름 이십 고르를 주었다.</u> 1고르는 약 220리터다. 그러므로 밀 2만 고르는 약 4,400,000리터, 기름 이십 고르는 4,400리터가 된다. 맑은 기름이란 올리브유 가운데서도 깨끗한 고급 기름을 뜻한다. 솔로몬은 이 엄청난 양의 식량을 히람의 왕궁에 매년 공급해주었을 뿐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성전 공사를 하는 히람의 인부들에게 밀 2만 고르,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밧, 기름 2만 밧(1밧은 약 22리터)을 매년 지급하였다. 솔로몬의 왕궁에서 소모되는 곡식이 연간 약 3만 2천 고르 정도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전력을 다했는지, 또한 그 역사를 감당한 이스라엘의 부요함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3) 성전 건축의 대업을 위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12절)? <u>그의 말씀대로 지혜를 주셨다.</u> 지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했던 은사였다. 솔로몬은 장수나, 부, 혹은 복수 같은 개인적 소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소원을 내놓았고, 그 소원에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 담겼다. 솔로몬의 소원을 크게 기뻐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과 장수를 약속하셨다(왕상 3:5-14).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바로 그 약속대로 받은 선물이었다. 나눔 3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대사를 이루기 위한 외교적 성취를 얻어내고, 다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과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해내기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공동체 _ 하나님의 집, 참 성전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써 헌신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9월 셋째 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집 열왕기상 8:22-32
본문을 시작하며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봉헌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성전에 머물러 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헌신은 늘 하나님의 은혜보다 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작음을 알고 겸손할 때 기뻐하시고, 헌신보다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말씀과 나눔	1.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22-26절). 1)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 고백합니까(24절)? <u>“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u>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엄청난 양의 자재와 물품을 준비했다(대상 22:1-5). 솔로몬 역시 성전 건축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하지만 이 대역사를 이룬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한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헌신을 한다 해도,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이 겸허함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진다. 2) 솔로몬이 굳게 붙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25절)? <u>다윗에게 주신 말씀, 곧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u>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다(대상 17:9-14). 이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삼하 7:15-16). 그러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약속 성취의 과정은 전혀 다를 것이다.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속에 이 약속의 성취를 볼 것이요, 만일 불순종한다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받는 중에 그 성취를 볼 것이다(삼하 7:14-16). 나눔 1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자신의 치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2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지난날, 혹은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자랑해봅시다.
	2.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길 간구합니다(27-32절). 1) 감히 하나님을 성전에 모실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7절)? <u>땅은 물론이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u>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세계 어디에나 계시며(렘 23:24; 시 139:7-10), 물질세계를 초월한 하늘 보좌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시 103:19). 2) 지극히 작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9절)? <u>주께서 전에 내 이름이 거기(성전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u> 거대한 성전도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티끌 같은 처소일 뿐이다. 하늘을 보좌로 삼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실 때야 비로소 인간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거하실 수 있다. 즉, 성전 봉헌은 결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주었다는 뜻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작고 초라한 집을 받으시고, 그곳에 함께하심으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신 것이다. 3)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까(30-32절)? 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30절): <u>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기를</u> ② 범죄를 판결받기 위해 구할 때(31, 32절): <u>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기를</u>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대하 2:6)라고 고백했다. 성전의 원형인 성막의 때로부터,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처소였다. 그러므로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며, 성전을 향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시기를 청하고 있다. 그 간구는 오직 영혼을 정결케 하는 회개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심판에 대한 간구였다. 성전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처소요,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통로였다. 나눔 2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전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선물, 혹은 순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나눔 3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고전 3:16). 성전 된 성도이자 신앙 공동체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따르고 또 드러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희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게 하소서. 공동체 _ 성전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드러내게 하소서.

9월 셋째 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 열왕기상 10:14-29
본문을 시작하며	10월의 주제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입니다(1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 2주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 3주 ‘두 마음의 신앙’, 4주 ‘헛된 신을 부르는 것’, 5주 ‘불의와 폭력’)입니다. 솔로몬은 국내외에서 엄청난 금을 거둬들여 축적합니다. 이것으로 금 방패와 보좌, 금 그릇을 만듭니다. 그의 영향력은 아라비아와 다시스까지 확장됩니다. 마땅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 왕국을 세우는 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도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에 빠져, 왕국이 분열되는 비극의 씨앗을 심고 맙니다.
말씀과 나눔	1. 솔로몬은 중개 무역을 통해 엄청난 금을 확보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합니다(14-22절). 1) 솔로몬이 해마다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의 양은 얼마입니까(14절)? <u>666달란트</u> 666달란트는, 히람으로부터 받은 금 120달란트(왕상 9:14), 오빌로부터 받은 금 420달란트(9:28), 스바의 여왕에게서 받은 금 120달란트(10:10)를 합한 양으로 보인다. 열왕기상 저자가 여기에 끝자리를 맞춰서 666달란트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666달란트는 약 22,600kg에 해당한다. 골드바 1kg을 한화 1억 원 정도로 환산한다면 666달란트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14절의 ‘한 해 동안’(히, ‘샤나’, NIV, ‘in one year’ 개역개정에는 이 단어가 번역되지 않음)은 매해를 의미하기보다 어떤 특정한 한 해를 의미하는 걸로 보인다. 2) 솔로몬은 거둬들인 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했습니까(16-18, 21절)? <u>방패 제작, 상아로 만든 큰 보좌 도금, 자신이 쓰는 그릇 제작</u> ‘큰 방패’(히, 친나) 하나를 만드는 데 금 600세겔이 필요했다. 1세겔은 11g이다. 그러므로 600세겔은 6.6kg을 의미한다. ‘큰 방패’와 대비되는 방패가 ‘작은 방패’(히, ‘마젠’)이다. 작은 방패는 금이 삼 마네다. 1마네는 50세겔 약 600g에 해당한다. 작은 방패는 1.8kg 정도다. ‘큰 방패’(친나)는 골리앗이 사용한 방패이기도 하다(삼상 17:7). ‘큰 방패’는 일반 사람이 들기 힘든 방패다. 그래서 큰 방패는 군사용보다는 축적된 금을 보관하는 방편이었으며, 나라의 부강과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다(참조. 왕상 14:26-28). 솔로몬은 보좌를 진귀한 상아로 만들고 그것을 도금했으며, 궁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제작했다. 솔로몬은 취득한 엄청난 금으로 자기 권좌와 권력의 위용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3) 솔로몬 시대의 외교와 통상 무역은 어느 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까(15, 22절)? <u>아라비아에서 다시스까지</u> ‘아라비아에서 다시스’는 이집트, 시리아, 아라비아, 지중해 세계를 포괄하는 말이다. 솔로몬이 고대 근동 지역과 지중해 연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국제 통상과 외교를 주도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시켜주셨다. 나눔 1 솔로몬 시대에 국가 재정이 튼튼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확보된 재력을 자기 권좌를 치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은 무엇인지, 나는 그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국방을 튼튼히 하는 데 사용합니다(23-29절). 1) 온 세상 사람들이 진기한 예물을 들고 솔로몬에게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23-25절)? <u>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u>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영광을 약속하셨다(왕상 3:12).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왕상 4:29-34). 그러므로 솔로몬 왕국의 풍요는 솔로몬 개인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은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직접 보고자 찾아온 것이다. 그들이 가져온 것을 ‘예물’(히, 민하)이라고 말한다. ‘예물’은 레위기 2:1-16에서는 ‘소제’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힘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바치는 조공이나 공물을 의미한다(참조. 왕하 17:3). 솔로몬 왕국이 당대에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힘 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솔로몬은 많은 병거와 군마를 어디에서 수입했습니까(26-28절)? <u>애굽</u> 솔로몬은 경제뿐 아니라 국방력도 튼튼히 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국고성과 병거성을 건축했다(참조. 왕상 9:19). 그리고 실전에 사용될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수입했다. 신명기 17:14-20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은 병마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축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왕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율법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3) 솔로몬은 수입해 온 말과 병거를 어떻게 했습니까(29절)? <u>헛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다.</u>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요 앞에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위험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솔로몬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는 나라라는 것이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대리할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적 술수와 야망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눔 2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엄청난 양의 금을 쌓고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군마를 많이 두지 말며, 군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신 17:16,17)는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율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율법을 어긴 이유는 무엇일지,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삶에서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공동체 _ 풍요와 번영이 아닌, 오직 순종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

10월 둘째 주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 열왕기상 13:1-10
본문을 시작하며	형식을 갖춘다고 저절로 참된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북이스라엘의 절기를 제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 제사드릴 수 있는 제단을 벧엘에 세웠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벧엘 제단의 불법성과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에도 여로보암은 형식뿐인 가짜 제의를 놓지 않습니다.
말씀과 나눔	1. 예언자가 불의한 벧엘 제단을 규탄하며 심판을 예언합니다(1-6절). 1)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벧엘 제단을 향해 선포한 예언은 무엇입니까(1, 2절)? <u>“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u>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생전에 선지자 아히아로부터 신탁을 받았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 지파를 솔로몬으로부터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줄 텐데 여로보암이 여호와와 명령에 순종하면 그의 나라가 견고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다(왕상 11:30-38). 하지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로 내려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벧엘과 단에 두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을 심판하기 위해 선지자를 파송하셨다. 선지자의 예언은 360년 후 요시아 왕을 통해 온전히 성취된다(왕하 23:20). 2) 벧엘 제단을 향한 예언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는 무엇입니까(3, 5절)? <u>예언자의 말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졌다.</u>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 건 ‘하나님의 사람’이 물리적 힘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적적인 표징이다(참조. 출 7:9). 그러므로 현재 벧엘 제단이 무너질 거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여로보암 왕국은 물론 우상숭배자들이 몰락할 것이라는 미래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3) 여로보암은 예언자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4, 6절)? <u>자기 손으로 예언자를 막으려 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마르게 하시자 예언자에게 자기 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u> 나눔 1 벧엘 제단을 통한 예배는 비록 형식은 갖추었지만,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유념할 점은 무엇입니까? 나눔 2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예언자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막으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2. 예언자는 왕이 베푸는 환대와 회유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7-10절). 1) 예물을 약속하며 회유하는 왕에게 예언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7, 8절)? <u>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 해도 왕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왕의 나라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며 단호히 거절한다.</u>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했다는 것은 제단을 ‘대적하여’(against) 심판을 선언했다는 말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불법 제단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고 있는데 왕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손으로 막아보려 한 것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손을 마르게 하여 다시 손을 거두어둘 일 수 없게 하였다. 그러자 왕은 다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자기 손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한다. 그때 왕의 손이 예전처럼 회복되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도 하시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신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마땅했다. 2) 예언자가 단호하게 왕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9, 10절)?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 애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고 벧엘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벧엘에서는 떡도 물도 마실 수 없었다. 이는 선지자가 벧엘에 잠시라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제한 명령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벧엘을 거부하신 이유는 여로보암을 통해 시작된 왜곡된 벧엘 제단이 불법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려 했기 때문이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는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다. 나눔 3 여로보암은 예언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지만, 그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안락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의 길과 성공의 길이 어긋나는 경우를 이야기해봅시다. 또 순종하기 위해 성공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공동체 _ 제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10월 셋째 주	두 마음의 신앙 열왕기상 15:9-24
본문을 시작하며	아사왕은 유다 땅에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철폐합니다. 또 아세라상을 세운 그의 할머니마저 폐위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산당 제사를 철폐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외세의 힘을 의존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한 마음은 아사의 통치에 남은 아쉬움입니다.
말씀과 나눔	1. 아사는 유다 땅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개혁을 시도합니다(9-15절). 1) 아사가 시행한 개혁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9-13절)?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불태웠으며, 아세라상을 만든 태후를 폐위시켰다. 아사 왕 41년 통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바뀌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3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아사 왕은 매우 장수한 왕이다. 아사 왕은 개혁을 통해 남유다를 종교, 정치적으로 안정시켰다. 아사는 우상을 척결했다. 심지어 태후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 상도 찢고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기도 했다. 마아가는 15:2을 참고해 볼 때 아사 왕의 할머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들’이라는 용어가 ‘손자, 자손’ 등을 지칭하기도 했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조부모나 선조’를 지칭하기도 했다. 아사는 또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는 신전의 남창을 의미한다. 2) 아사가 하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14, 15절)? <u>산당을 없애는 일을 하지 않았다.</u> 남유다 대부분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다(참조. 왕상 22:43). 이스라엘 사회에서 산당 제사를 없애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시아 왕에 이르러서야 중앙 성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산당 제사가 척결된다(왕하 23:6-7). 산당 제사의 문제는 이곳에서 여호와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방 우상도 함께 섬긴다는 점이다. 산당 제사는 당시 가나안에 유행하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여호와 신앙이 혼합되어 나타난 민간 신앙의 형태를 띠었다(참조. 호 4:13-14). 여호와 신앙이 교묘하게 민간 신앙으로 변질되면 개혁 작업은 더 어려워진다. 나눔 1 아사는 유다 땅에서 사회·종교적 개혁을 시도했지만, 산당 제사만큼은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에 남아 있는 잘못된 문화나 관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폐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철폐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봅시다.
	2. 아사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외세의 힘을 빌립니다(16-24절). 1)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6, 17절)? <u>라마를 건축(요새화)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u>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다(왕상 15:27-30).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아에게 여로보암 가문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14:10,11), 그 일을 성취한 사람이 바아사다. 하지만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멸망시키고도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똑같이 걷는다(15:34; 16:7).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바아사는 라마를 군사적 요새로 삼아 북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방문을 막으려 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된 땅이다(수 18:25). 라마가 점령당하면 예루살렘도 위태로울 수 있다. 그래서 바아사 왕과 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왕상 15:32). 2) 유다 왕 아사는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합니까(18, 19절)? <u>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아람 왕 벤하닷에게 주어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u> 유다 왕 아사는 동족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외세의 힘을 빌린다. 아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외세의 힘을 더 의지했다. 3) 아람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은 어떻게 전개됩니까(20-22절)? <u>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물러났다.</u> 유다로부터 조공을 받은 아람은 군대를 파송해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공격했다. 20절에 나오는 이윤과 단, 아벨벤타마가와 긴네렛, 납달리 등은 갈릴리 북부 지역이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공격하여 라마에 요새를 건축 중이었는데 북쪽에서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되자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이 라마 성읍 건축을 중단하자 바로 라마 근처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 성읍을 건축하였다. 아사 왕은 우상을 척결하는 개혁적 면모를 보였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하나님보다 외세와 자기 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눔 2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예루살렘 근처의 라마를 차지하고 요새로 만들려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욕으로 백성이 예배하는 일까지 막은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사회·정치적 억압 때문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례를 알고 있다면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눔 3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힘도 의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대하 16:7).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현실적 해결책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불신과 지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공동체 _ 교회가 실리와 믿음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10월 넷째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열왕기상 18:30-46
본문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우상을 버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엘리야가 나섭니다. 우상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보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열두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물을 채워 번제물에 붓게 한 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도랑의 물까지 다 끓어버립니다 .
말씀과 나눔	1.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30-40절). 1) 엘리야는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준비합니까(30-35절)? <u>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해 제단을 쌓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고, 송아지의 각을 떼서 제단 위에 벌여 놓은 뒤, 네 통의 물을 가져다가 제물과 제단에 세 번이나 흥건하게 붓게 하였다.</u>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와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참조. 왕상 19:10).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엘리야가 세운 제단은 엘리야 개인의 제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단임을 보여준다(31절).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물 내려갈 도랑을 파고, 제단의 번제물에 물을 가득 부었다(32-35절). 마른 제물을 태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번제물을 물로 흥건하게 적시라고 한 것이다. 2)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36, 37절)? <u>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다.</u> 엘리야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언약의 주이심을 백성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라는 관용적 표현이다. 둘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임을 백성에게 확인시켜달라는 것이다. 셋째, 여호와가 백성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달라는 완곡한 간구의 표현이기도 하다. 3)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자 백성과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39, 40절)? ① 백성(39절): <u>“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u> 하고 고백했다. ② 엘리야(40절): <u>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처형했다.</u>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과 제물을 다 태운 것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다. 불이 내리는 것을 본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엘리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촉구한다. 즉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처형한다. 나눔 1 엘리야는 열두 돌을 취해 제단을 쌓음으로써 자신이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임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나눔 2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 손에서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2. 엘리야는 아합에게 오랜 가뭄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41-46절). 1) 엘리야는 아합에게 무엇을 말합니까(41절)? <u>“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u>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징벌하기 위해 의도하신 것이다(왕상 17:1; 약 5:17-18).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다시 내리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2)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를 예고한 후, 어떻게 행동합니까(42-44절)? <u>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일곱 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한다.</u>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신앙인의 큰 실수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시기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대단한 믿음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겔 36:37) 나눔 3 엘리야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을 때, 믿음으로 비가 내릴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기도하는 믿음을 주소서. 공동체 _ 하나님 아닌 것에 기운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10월 다섯째 주	불의와 폭력 열왕기상 21:1-10
본문을 시작하며	탐심이 불의한 권력과 만나면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은 무고한 희생을 낳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냅니다. 처음에는 돈을 주고 매입하려 하지만,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기업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하는 나봇의 말에 왕궁으로 돌아와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에 왕비 이세벨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무고한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탈취합니다.
말씀과 나눔	1.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합니다(1-6절). 1)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3, 4절; 참조. 레 25:23)? <u>하나님이 주신 조상의 유산(기업, 땅)을 매매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u>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북쪽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옥한 평원이다. 이스라엘은 갈멜 산, 다불 산, 길보아 산 등에 둘러싸인 분지이면서 평야 지대다. 이 땅은 물이 풍부하여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에 북이스라엘의 겨울 궁전이 있기도 했다. 아합의 왕궁 바로 옆에 비옥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이다. 아합은 그 땅을 욕심내고 돈을 주고서라도 구입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봇은 그 땅을 매매하기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그 땅은 출애굽 광야 이후 조상들이 분배받아서 대대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봇은 자기 맘대로 그 땅을 팔 수 없었다. 나봇은 레위기 25:23의 말씀대로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임을 밝히면서 팔 수 없다고 말했다. 2)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하게 되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4절)? <u>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는다.</u> 아합 왕은 마치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가질 수 없을 때 밥도 먹지 않고 떼를 쓰듯이 식음을 전폐하며 상심에 빠졌다.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한 이상, 아합 왕이 그 땅을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므로 아합 왕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빨리 깨닫고 욕심을 내려놔야 마땅했다. 하지만 아합은 탐욕을 포기하지 않고, ‘취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악한 미련을 계속 가진다. 탐욕을 버리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자라게 되고, 죄는 그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참조. 약 1:15). 3) 실의에 빠진 아합은 그 답답함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5, 6절)? <u>아내 이세벨</u> 원래 이스라엘 왕의 신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래서 왕의 제일 덕목은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백성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왕 앞에 가지고 나아오면 왕은 지혜롭고 공의로써 그 사안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명기 17:18에서 왕은 항상 자기 옆에 율법을 가까이 두어서 그 율법에 따라 지혜롭게 판단하며 행동해야 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자신의 직분과 직무를 유기하면서 문제를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로 가져간다. 나눔 1 아합이 합법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유산)으로 주신 땅은 영구히 매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과 욕망 사이에서 고민했던 일이 있는지 돌아보고, 어떻게 이를 이길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나눔 2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정착시키려 한 장본인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한 것도 문제지만, 악인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그의 악한 계획을 듣고 실행한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내 삶의 고민과 문제를 믿고 상의할 사람은 누구인지 이야기해보고, 그 경험을 나눠봅시다. 2.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할 계락을 꾸밉니다(7-10절). 1) 아합의 고민을 들은 이세벨이 맨 처음 한 말은 무엇입니까(7절)? <u>“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u>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율법과 양심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 강탈하는 것을 주저하며 애만 태웠다. 하지만 시돈 출신 아내 이세벨은 마음에 아예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담아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권위를 가지고 탈취하는 일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확신 있는 어법으로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선사하겠다’고 한다. 마치 우는 아이 달래듯이 이세벨은 우유부단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합을 달래면서 단호하게 죄를 짓도록 채근한다. 2)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무엇을 지시합니까(8-10절)? <u>거짓 증인의 위증을 통해 누명을 나봇에게 씌운 후 그를 처형하라고 지시했다.</u> 이세벨은 악한 일에 단호했다. 아합이 율법과 양심 때문에 넘을 수 없었던 선을 이세벨은 ‘왕이 이런 일 하는 게 무슨 대수냐?’며 아무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한다.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며 반역을 꾀하려 했으며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 이세벨이 백성의 땅을 함부로 갈취하려 한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 한 사람의 생명을 무고하게 해친 데 있다. 지도자는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의와 폭력을 일삼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공동체 지도자는 공적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욕심을 통제해야 한다. 나눔 3 불의한 욕심을 죄를 낳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진 경험이 있는지 돌아보고,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떻게 힘써야 할지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공동체 _ 약자를 존중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11월 첫째 주	의인도 고통당한다 욥기 1:1-12
본문을 시작하며	11월의 주제는 ‘하나님께 고통을 묻다’입니다(1주 ‘의인도 고통당한다’, 2주 ‘의인이 고통을 호소할 때’, 3주 ‘하나님이 고통에 침묵하실 때’, 4주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자’). 하나님은 의로운 성도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만 깨닫는 인생이 있고, 고통 속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말씀과 나눔	1. 우스 사람 욥을 소개합니다(1-5절). 1)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1절)? <u>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u> 욥기는 욥이라는 한 인물을 설명하는 데 있어 그의 온전한 신앙과 인격을 가장 먼저 묘사한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가를 알 수 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2) 욥의 자녀는 몇 명이고, 그의 재산은 어느 정도입니까(2, 3절)? <u>아들 일곱과 딸 셋, 양 7000, 낙타 3000. 소 500 겨리, 암나귀 500, 종도 많았다.</u> 욥의 아들과 딸의 숫자인 7과 3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한다. 욥기의 저자가 욥의 온전한 신앙과 인격을 설명한 다음, 욥이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해 기록한 것은 욥의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확인케 해준다. 3) 욥이 자녀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입니까(5절)? <u>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림.</u> 욥의 온전함은 그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욥이 자녀를 살피면서 가장 우선했던 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 되는 일이었다. 부모에게 자녀란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다. 부모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애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입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할지라도, 정작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녀의 성적이라면, 그 부모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인정과 성공임을 하나님이 아실뿐 아니라, 자녀 역시도 알게 될 것이다. 나눔 1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하는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나눔 2 욥은 자녀들의 신앙을 살피되, 혹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죄로부터 지키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2.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할 구실을 만듭니다(6-12절). 1)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어떤 말로 자랑하십니까(8절)? <u>“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u> 하나님께서 욥을 “내 중”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욥의 의가 단순히 도덕적 순결성에서 온 것이 아님을 알게 한다. 욥이 가진 의의 원천은 ‘중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욥을 자랑하셨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자랑하는 것 같은 인격적 행위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인해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며, 분노하기도 하신다. 2) 사탄은 욥에 대해 무엇이러 말하며 하나님을 자극하니까(11절)? <u>“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u> 욥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사탄이 던진 도발의 핵심은 “과연 욥도 하나님 당신 자체를 기뻐하는 걸까요?” 하는 도전이었다. 욥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통장을 기뻐한다는 게 사탄의 생각이었다. 이제 하나님과 욥은 “통장을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을 싫어하게 될 테니”라는 사탄의 도전 앞에 서게 되었다. 이는 때로 우리도 직면하게 되는 도전이다. 과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신 분이라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쁨이라 고백할 수 있는가? 3)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12절)? <u>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셨다.</u>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욥을 시험하게 된다. 이는 사탄이 결코 능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람을 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활동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를 인간과 함께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다(창 1:28; 마 28:18-20). 인간은 죄의 원흉인 사탄의 도전 앞에서 의의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엡 6:10-13). 나눔 3 욥의 고통은 그가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고통에 관하여 어떤 통찰을 주는지 나눠봅시다.
함께	삶 _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

공동체 _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지키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11월 둘째 주	의인이 고통을 호소할 때 욥기 3:1-26
본문을 시작하며	강함과 용맹만이 믿음의 표상은 아닙니다. 의인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눈물을 온전히 이해하고 닦아주실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나눔	1.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1-10절). 1) 고통 속에 침묵하던 욥이 입을 열어 처음 뱉은 말은 무엇입니까(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하나님께 흠이 없고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욥이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앞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괴로움을 토로한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조차 십자가 앞에서 심히 괴로워하셨다(눅 22:42-44). 그러므로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거나, 성급하게 “믿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라고 충고하는 것은 경솔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2)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0절)? <u>눈으로 환난을 보기 때문에(살아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u> 욥은 먼저 자신이 탄생한 날 그 자체를 저주한다. 그날이 아예 없었더라면 그가 태어날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세상의 날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은 욥이었지만(욥 2:10), 이처럼 괴로움이 가득한 날과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눔 1 욥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태어난 날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는 언제인지, 그때의 심정은 어땠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 욥이 살아있음을 탄식합니다(11-26절). 1) 욥은 어머니 태에서 죽었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지금 어떠했으리라 말합니까(11-13절)? <u>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고 한다.</u> 창조 세계에 주어졌던 탄생의 날을 저주한 욥은 이제 자기 생명을 저주하기 시작한다. 태어나면서 죽었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지금의 고통을 보지 않아도 되었으리라는 탄식이었다. 세상이란 무엇이며,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몇 문장으로 요약되는 교리적 정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욥이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은 한계를 초월한 고통과 친구들의 배신, 지난한 논쟁과 깊은 고뇌,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였다. 2)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제기하는 의문은 무엇입니까(20절)? <u>“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u>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며, 선하시다면 왜 세상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자주 던져지는 질문이다. 세상은 신자에게 묻는다. 세상에 만연한 고통을 보고 겪으면서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차라리 하나님이 악하다 하든지, 하나님은 없다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욥을 향한 사탄의 도전이었다. 모든 걸 다 빼앗겨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3) 욥이 그토록 씬을 갈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6절)? <u>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기 때문이다.</u> 쉽지 않은 세상은 얼마나 끔찍한가. 욥은 그 끔찍함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모든 인류의 눈앞에 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도전 앞에서 실패했고, 세상은 고통의 현장이 되었다(창 3:16-19). 인생의 종착지에서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영원한 고통이다(막 9:48-49). 그러나 완전한 의인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마 11:28). 사탄의 시험 앞에 욥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가. 아담과 하와의 길인가, 아니면 고통 받는 의인의 길에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길인가. 이 선택이 바로 욥기의 주제와 닿아 있다. 나눔 2 욥은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선망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불경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꾸밈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욥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나눠봅시다. 나눔 3 욥은 자기 생명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과 고통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임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함께	삶 _ 슬프고 아픈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소서.

기도

공동체 _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지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며 섬기게 하소서.

11월 셋째 주	하나님이 고통에 침묵하실 때 욥기 10:1-22
본문을 시작하며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자, 비록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려 합니다.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물음에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과 나눔	1.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묻습니다(1-12절). 1) 욥이 하나님께 청한 것은 무엇입니까(2절)? <u>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자신과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청했다.</u>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묻는다.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침묵이었다. 욥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욥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신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다. 2) 욥이 하나님께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3절)? <u>“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u> 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눈과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믿기에 자신의 고통도 하나님의 의도라고 이해했다. 그렇다면 자신은 왜 합당한 죄가 없음에도 크나큰 고통을 당해야 하고, 악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봐야 하는가. 이것이 욥의 질문이었고, 그 질문은 도전적이었다. 교회 안에서 신앙에 대한 도전적 질문은 때론 불신앙적 태도로 정죄되기도 한다. 하지만 욥의 경우와 같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적 진리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다. 3) 욥은 자신이 당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7, 8절)? <u>하나님이 욥에게 악이 없는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욥 자신을 멸시한다고 이해한다.</u>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함을 아신다고 확신한다.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도 확신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자신에게 등을 돌려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욥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더 큰 고통에 빠져버렸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실망하게 하신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하는 세례 요한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마 11:6)라고 하셨다. 나눔 1 욥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간곡하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꼭 고통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과 질문이었는지 나눠봅시다. 나눔 2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멸시받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런 감정으로 괴로워하는 지체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괴로움을 겪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2.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버려두라고 호소합니다(13-22절) 1) 욥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다고 생각합니까(13-15절)? <u>욥은 하나님이 ‘욥이 죄인이면 용서하지 않겠고, 의인이라도 환난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품으셨다고 생각한다.</u> 욥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욥은 지금 하나님이 의로울지라도 인정해주시지 않고 고통과 수치를 주신다고 생각한다. 물론 욥의 생각은 그가 가진 한계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욥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자기 삶을 부정당하는 감정을 느낄 때 가지게 되는 절망을 들여다보게 된다. 2)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한다고 느낍니까(16, 17절)? <u>자신을 사냥하시고, 자신을 고발하는 증인들을 세우시며, 자신을 치신다고 느낀다.</u>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냥하는 사자처럼 잔혹하고, 침략하는 군대만큼 무자비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무자비한 군대는 자신을 정죄하는 말로 공격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욥이 겪은 재앙,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실감만큼이나 큰 고통은 바로 친구들의 정죄였다. 사람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죄악과 고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3) 욥이 자신을 공격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20, 21절)? <u>자신을 버려두사 죽기 전에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u> 욥은 자기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무자비함에 실망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그분께 평안을 구한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전능자로 믿고 있고, 결국 자기 운명의 결론을 그분께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눔 3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냥꾼’이나 ‘침략군’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에게 결여된 ‘하나님 이해’, ‘하나님 인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함께 기도	삶 _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소서. 공동체 _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삶을 이해하는 안목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소서.
------------------	--

11월 넷째 주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자 욥기 19:1-29
본문을 시작하며	욥이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가족과 친지들, 또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구원자를 바라봅니다. 완전한 의인으로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리스도는 모든 고통 받는 의인의 대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말씀과 나눔	1. 욥이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책망합니다(1-20절). 1)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뭐라고 책망합니까(2, 3절)? <u>“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u> 욥도 친구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대목에서는 똑같다. 하지만 욥의 무지는 자기 삶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께 대한 호소로 나타난 데 반해, 친구들의 무지는 욥을 짓밟는 정죄로 나타났다는 부분에서, 욥과 친구들은 분명히 다르다. 그 때문에 욥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시며 회개를 명하셨다(욥 42:7-9). 욥은 친구들의 정죄가 자신을 ‘짓부수는’ 일이며, ‘학대’하는 일이라고 항변한다. 2) 욥은 자신을 정죄하면서도 구체적인 죄목을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항변합니까(5, 6절)? <u>자신에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면 증언하라 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로 에워싸셨다고 말했다.</u> 욥은 친구들이 행하는 정죄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자신들이 욥보다 낫다는 근거 없는 자만을 가진 것이다. 우리의 그릇된 정죄는 대부분은 그릇된 자만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친구들이 명확한 죄를 알지 못하면서도 욥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3) 재앙을 당한 욥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고통은 무엇입니까(13절)? <u>욥을 아는 모든 사람이 욥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u> 인생의 고난은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알게 해준다고 한다.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는 그를 저주하며 떠났다. 그 와중에 욥에게 달려와준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었다. 그들은 욥의 참담한 상황을 보고 울며,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줬을 만큼 훌륭한 친구들이었다. 그런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을 때, 욥의 마음은 더 크게 무너졌을 것이다. 나눔 1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폭력적인 말을 내뱉은 이유는 욥의 구체적인 죄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단지 욥의 고난만 보고 죄를 추정하여 정죄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위해 내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욥이 자기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자를 소망합니다(21-29절). 1) 욥이 친구들에게 호소하는 바는 무엇입니까(21절)? <u>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다.</u> 욥의 친구들은 욥이 침묵할 때, 함께 침묵했지만, 욥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욥의 잘못을 꼬집기 시작했다. 하지만 욥에게 필요했던 건 자기 말의 잘잘못을 가려줄 판단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픈 심정을 들어주고 위로해줄 친구들이었다. 욥이 친구들에게 원했던 건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에게 필요한 것도 그리 거창한 일은 아닐지 모른다. 그저 그들의 마음과 처지를 공감해주는 작고 겸손한 그 마음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2) 의인 욥이 억울함 속에서도 잃지 않은 소망은 무엇입니까(25절)? <u>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는 소망</u> 아내와 가족들이 떠나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친구들마저 욥에게 등을 돌렸을 때, 욥은 자신의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게 되었다. 신자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 친구가 있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셨다(요 15:15). 온 세상이 날 버렸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오신 주의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라는 찬송이 가능한 이유다(찬송가 88장). 3) 욥은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29절)? <u>칼의 형벌과 심판장이 있음을 알게 되리라고 경고했다.</u> 우리의 모든 언행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쓸데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까지도 심판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셨다(마 12:36-37). 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한 경고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라고 말한다. 나눔 2 욥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내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나눔 3 욥은 까닭 모를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벅찬 위로와 생생한 소망으로 다가온 경험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함께	삶 _ 하나님의 궁극적인 신원과 구원을 소망하며 끝까지 의롭게 살게 하소서.

기도

공동체 _ 어려움에 빠진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12월 첫째 주	고난받는 하늘 백성 욥기 25:1-26:14
본문을 시작하며	12월의 주제는 ‘뜻대를 향하는 하늘 백성’입니다(1주 ‘고난받는 하늘 백성’, 2주 ‘탄식하는 하늘 백성’, 3주 ‘말씀 앞에 선 하늘 백성’, 4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하늘 백성’, 5주 ‘뜻대를 향하는 하늘 백성’).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불의를 인정하고 고난을 수용하라고 충고하지만, 욥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에 던지신 현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까닭 모를 고난으로 욥의 고뇌는 깊어갑니다.
	1. 빌닷은 하나님의 위엄을 내세우면서 욥의 불의를 지적하려 합니다(25:1-6). 1) 빌닷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1-3절)? <u>‘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며, 그의 군대를 셀 수 없고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u>라고 소개한다. 욥기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연설이다. 이 연설은 이미 엘리비스가 제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간은 없다’(4:17; 15:14-16)는 논의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빌닷은 인간의 비천함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 2-3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여 찬양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다. 하나님께서 절대 왕이 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하셨다. 그의 영광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2) 하나님의 속성을 진술하는 빌닷의 의도는 무엇입니까(4-6절)? 사람에 불과한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2-3절의 빌닷의 찬양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다. 그릇된 말이 전혀 없다. 빌닷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빌닷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유는 욥이 결단코 의롭지 않으며 그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다. 4-6절에서 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3인칭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라는 선언은 욥을 더욱 매섭게 공격하는 수단이 되었다.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찬양이 혹시라도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는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나눔 1 빌닷의 말은 욥에게 적절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과 정결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 능력, 거룩함, 의로움 면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한 경험이 있다면 나뉘십시오.
말씀과 나눔	2. 욥도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배려 없는 친구의 말이 야속할뿐입니다(26:1-14). 1) 욥은 빌닷의 날카로운 진술에 어떻게 답합니까(1-4절)? 욥은 반어법을 사용해서 <u>‘빌닷의 말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리석음 뿐’</u>이라고 지적한다. 26장은 욥이 빌닷에게 하는 마지막 대답이다. 욥은 약간 비꼬는 투로 빌닷의 말이 얼마나 허무하고 효력 없는 것인지를 말한다. 욥이 먼저 지적하는 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교리가 결코 욥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욥은 빌닷에게 그의 말이 힘없는 자를 도와주는 커녕 상처만 덧내고 있다고 한다. 2) 욥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어디까지 닿았다고 말합니까(5-9절)? <u>스올, 땅, 바다, 하늘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한다.</u> 욥은 친구들과 다름 없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한다. 욥이 친구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한 것이다. 욥은 5, 6절에서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다. 3) 욥은 하나님이 어떤 세력까지 통제하신다고 말합니까(10-14절)? <u>하나님이 빛과 어둠의 경계를 나누시고, 바다 아래 어둠의 세력(라합, 뱀)까지도 다스리신다고 말한다.</u> 10절에서 ‘경계’는 바다와 창공이 맞닿아 있는 수평선을 의미한다. 이 선은 동쪽에서 빛이 떠올라서 서쪽으로 사라지는 선이다. 즉 이 경계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경계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즉 하늘의 기둥이 흔들린다고 한다. 이 하늘 기둥은 하늘의 궁창이나 판을 떠받치는 견고한 산들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 창조 질서가 흔들린 것이다. 12절의 ‘라합’은 13절의 ‘날렵한 뱀’과 동일한 존재다. 바다에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의 괴물이다.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하나님께서 혼돈의 물을 정복하시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 욥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가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까지도 통제하고 있음을 찬양한다. 나눔 2 빌닷의 신학이 옳을지 몰라도, 욥을 향한 그의 발언은 옳지 않았습니다. 옳은 신학이 누군가에게 비수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면 나뉘십시오.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나눔 3 욥도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신만 소외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지 않으시고, 날 위해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낀 때가 있었습니까?
함께 기도	삶 _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는 데 말씀을 오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공동체 _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소서.

12월 둘째 주	탄식하는 하늘 백성 욥기 31:24-40
본문을 시작하며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낯선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잘못으로 받는 벌이라면 회개로 반응해야 마땅하지만, 잘못된 게 없는데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는다면 탄식이 나올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이웃을 배척하거나 착취한 적도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도 죄인 취급받으며 고통 속에 있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말씀과 나눔	1. 욥이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온 삶을 들려주며 결백을 주장합니다(24-32절). 1) 욥은 삶 속에서 어떻게 경건을 유지해왔습니까(24-28절)? <u>욥은 재물에 눈이 먼 적도, 우상(천체 신)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없었다.</u> 욥은 31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이런 징벌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소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한다. 이런 욥의 태도를 보며 욥은 매우 교만하고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욥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너희가 내 중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 42:7). 2) 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까(29-32절)? <u>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았고, 자기 집안 종들을 잘 돌보았으며,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환대하였다.</u>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언약 백성다운 경건한 삶을 살았다. 심지어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가 벌을 받을 지라도 함부로 이 일로 기뻐하지 않았다. 욥은 사적 복수심에 불타서 원수가 넘어지고 망하기를 바라면서 마음으로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지 않았다. 또한 욥은 나그네 환대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경건한 삶을 살았다. 나눔 1 욥은 재물과 우상에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일 수 없었습니다. 까닭 모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 시기를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33-40절). 1) 욥이 두려움 없이 집 밖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33, 34절)? <u>욥은 악을 행하지도 숨기지도 않았기에 집 밖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u> 욥이 두려움 없이 대문 밖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무 죄도 없이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며, 자기 내면을 잘 포장해서 위선적으로 살았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정직하게 살았다. 그에게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양심이 있었다. 2) 욥은 토지의 소산과 소유주(농사꾼)에게 어떤 자제를 취했습니까(38-40절)? <u>토지소산을 착취하지 않았고, 경작자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도 않았다.</u> 욥은 자신이 소작농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밭’ (땅)이 증인이 될 거라 한다. 만일 땅의 수확물을 소작농들로부터 강제 수탈하여 자기 배를 채웠다면 땅 자체가 욥을 향해 부르짖을 거라고 한다. 욥은 자신의 양심과 하늘과 땅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역시 욥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 자신은 그런 징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소연한 것이다. 3) 욥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35-37절)? <u>욥은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의 고발장을 들고 당당히 하나님의 재판정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한다.</u> 욥은 친구들의 고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항소한다. 자기의 걸음을 세시는(4절)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판단해주시길 간구한다. 친구들의 도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악 간에 판단 받고 싶어 한다. 욥은 친구들에게 “만일 너희가 나를 고소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 고소장을 어께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거다” 라고 말한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며 정죄 받는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 나눔 2 욥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악을 행하거나, 악을 은폐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이 아닌, 진실한 사람이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 돌아볼 점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나눔 3 욥은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지,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	삶 _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 수 있게 하소서. 공동체 _ 탄식하는 지체를 위로하며,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12월 셋째 주	말씀 앞에 선 하늘 백성 욥기 38:1-18
본문을 시작하며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삶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차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납니다. 이로 인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현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던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는 욥에게 감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욥을 더 높은 지혜로 이끌기 위해 놓으신 발판입니다.
말씀과 나눔	1.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1-3절). 1)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2절)? <u>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u> 욥이 억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욥이 한 말 중 하나도 그른 것이 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신다’(욥 12:22)라고 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끔찍한 악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말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도 몸을 망가뜨렸다면(10:8, 9), 이럴 거면 왜 태어나게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항변했다(10:18, 19). 그리고 급기야 전능자가 자기에게 대답해주길 바란다고 외쳤다(31:35). 이 모든 말은 욥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쏟아낸 말들이다. 그런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욥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욥 역시 완전하지 않은 피조물 중 하나라는 것을 환기시킨다. 2)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3절)? <u>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것에 대답하라고 요구하신다.</u> 하나님은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묶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신다. 아직 욥은 자기 억울한 감정에만 빠져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 요법을 통해 욥의 무지함을 드러내려 하신 것이다. 또한 이는 욥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은혜의 방편이다. 나눔 1 하나님은 무지한 욥을 일깨우기 위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새로운 지혜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2. 하나님은 욥이 알 수도,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을 쏟아내십니다(4-18절). 1)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욥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4-11절)? <u>하나님이 어떻게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셨는지</u> 욥은 3장에서 자기 태어난 날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 받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지 원망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향해, “네가 창조에 대해서 아는 게 무엇인가?” 질문하신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렇게나 이뤄진 게 아니라 철저한 설계와 기초 위에서 마치 아름다운 건축물이 만들어지듯이 창조되었다(4-6절). 욥이 창조의 신비를 제대로 알았다면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창조 가운데서 악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셨다는 것이다. 8-10절에서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빛장을 질렀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욥이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악한 상황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2) 욥이 감히 엄두도 못 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12-15절)? <u>어둠을 새벽빛으로 몰아내시고, 교만하고 악한 반역자들의 팔을 꺾으시는 일이다.</u> 하나님께서 마치 군대 사령관처럼 아침을 향해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임하면 악한 자들은 마치 모포를 털 때 먼지 털리듯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마치 진흙에 도장을 찍을 때 윤곽이 드러나듯이 산과 골짜기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악인은 빛을 잃을 것이며 그의 세력은 멸망할 것이다. 욥은 현재 자기 삶만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과 회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좀 더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선악 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 욥이 알지 못하는 세계는 어디입니까(16-18절)? <u>바다의 샘, 깊은 물 밑, 사망의 문, 땅의 너비</u> 하나님께서 욥에게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신다. 16절의 ‘바다의 샘’, ‘깊은 물 밑’은 깊고 어두운 바다와 죽은 자들의 자리인 스올의 경계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비록 극한의 고난을 겪었지만 죽은 자들의 자리에 내려가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신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아직 죽음을 체험하지는 않았다. 아니 욥에게 죽음의 자리는 자기 통제 영역 밖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영역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나눔 2 하나님은 욥을 깨우치시려 욥의 무지와 한계를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할 수 없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나눔 3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와 섭리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에게 어떤 답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	삶 _ 하나님 앞에서 제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겸손히 살아가게 하소서. 공동체 _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